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영구적인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5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조심하는
사람은 없다 〈중아함〉

법회 안내

청수사 (02)816-1290
자성일 동참불사 일 오전10시
수요정진법회 수 오후7시
학생학법회 일 오후2시
한문교실 월~금 오후4시

봉원사 (02)392-3007~8
반야학법회 매월 1일(음)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년학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경기고양 장안사(0344)63-1954
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장안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안양법회 매월 19일(음) 오전11시

보은정사포교원 (032)512-7578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신도 · 청년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주 용화사 (0431)276-0108
청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8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법화산림법회 안내

법화경은 희극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누구나 보살이 되어 부처님의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불자가 되리고 합니다.

· 법 사 : 현해 곤스님 (월정사 주지)
· 시 간 : 불기 2539년 6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 장 소 : 본 연구원 법당
· 문 의 : TEL.(02)736-6202 FAX(02)736-6205

한국불교발전연구원

대구·청주에 佛放지국 설립인가

김대통령, 지난 19일 월주스님에 통보…내년말 첫 전파

대구와 청주지역에 불교방송 지국의 설치가 정부로부터 인가됐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9일 아침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에게 전화를 통해 "대구와 청주지역에 불교방송 지국설립을 허가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대통령은 월주스님에게 "어느 지역의 허가를 원하느냐"고 질문했으며 월주스님은 "대구, 대전, 청주, 춘천등 최소한 4곳은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4곳은 무리가 있는듯 하다"며 "우선적으로 대구와 청주지역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김대통령의 이날 2개 지방국 추가허가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추가허가에 대한 교계의 요구와 공약사항 이행, 행정쇄신위원회의 보고사항 등과 관련된 조치로 보인다.

〈본지 25호 참조〉

김대통령과 월주스님과의 약속에 따라 정부측과 조계종, 불교방송 관계자들은 대구와 청주지역 불교방송 지국 설립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의 경우 이미 추가인가에 대비 지역 승가와 재가등과 지국설립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왔었다.

따라서 대구·청주지역의 지국설립은 추진위 구성과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말쯤에는 전파를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청주지역에서도 지국설립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교계는 이와 함께 대전, 전주, 춘천, 창원, 제주, 강원도등에도 불교방송 설치허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임연태 · 김원우 기자)

김태호사장 사표 수리 직무대행 강한필전무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종하)는 지난 11일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김태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태호사장은 지난달 28일 불교방송사태와 관련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었다. 김사장은 지난 13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한편 이사회는 김사장의 사퇴와 관련 강한필 전무를 사장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또 이사회는 영담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을 새 이사로 영입했다.



부처님과 만나는 길 '96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돼, 교계는 50여 출판사에서 1천여종의 불서를 전시 판매했다. 지난 17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삼대통령은 불서전시장에 들러 〈나룻배와 행인〉(동봉 지음)을 구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12면). (사진=박재완 기자)

초심자 입문서 발간 계획

조계종 편찬위 구성 내년 2월 보급

불교초심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도 입문서가 발간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오계를 수지하기 전의 초심자 신도를 대상으로, 기본적이며 알기쉬운 입문서를 제작하기로 하고 기획 및 편찬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니기 쉬운 관형으로 3백쪽 분량으로 나올 입문서는 오는 6월 초 편찬위원회를 구성, 세미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원고작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조계종단차원에서는 최초로 발간되는 입문서는 기존에 나와있는 기초교리서와는 달리 기초교리뿐 아니라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한국불교의 역할 △현대사회와 미래에 있어 불교인의 역할 △불교의 건강법 △사찰 예법 △사찰구조 알기 등 불교를 처음 접한 신도와 일반인들의 신심을 고취시킬수 있고, 증단의 참여자로서의 기초자질을 갖추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포교원은 삽화 · 사진 · 만화등도 곁들여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입문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목어

어느 고등학교 한문교사가 한 학부모로부터 촌지봉투를 받았다. 그 선생님은 학생집을 찾아가 촌지봉투를 돌려주었다.

"애쓰시는 선생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것이니 거둬 주십시오."

"제게 꼭 무엇 주시고 싶으시면 책을 한권 사주십시오."

그 교사는 며칠후 친구를 찾아가 돈을 꾸어 달라고 했다. 담임반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서였다.

"왜 그 촌지 받아서 좋은 일에 쓰지 그랬나."

"모르는 소리 그만둬. 그 봉투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학생 얼굴에 시선이 자주 갈텐데…"

그 돈봉투 속에 들은 것

이런 기자도 있었다.

어느 의사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두툼한 봉투가 전달됐다. 극구 사양을 했으나 전하는 쪽도 막무가내였다. 기자는 봉투를 받아 그 의사네집 잔디 정원에 '퐉' 지폐를 뿌렸다.

요즘 '든 봉투' 얘기가 신문에 자주 오르내린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대회장에서 있었던 주택 때문이다. 개끗한 선거를 기대하는 국민들 앞에 그 돈봉투는 오물과 다름없었다. 주고 받는 마음은 순수해야 한다. 선거관을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번히 속보이는 돈봉투가 아무 거림낌 없이 오고 갔다.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한 원인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아무리 명예에 눈이 어두워 돈세례를 퍼부어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공명 선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인기 탤런트 김영애씨가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동참했다. 신심돈독하기로 소문난 김씨는 "꼭 필요한 불자의 자랑심기운동"이라며 차량과 자택 현관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불자가정' 전국 확산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부착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부처님 오신날 전국의 불자가정에 5만장이 부착된 이후 본사에 계속 주문이 쇄도, 18일 현재까지 7만5천여장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본사는 주문처의 요구에 따라 1천매 이상을 주문할 경우 제작 실비만 보시금으로 받고 사찰이나 단체의 이름을 스티커 앞면에 인쇄하기로 했습니다.

1천매이상 주문 사찰 · 단체명 인쇄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팔봉사(주지 운성) △악수암(주지 안병식) △성불사(주지 가섭) △국제종합기계 생산부 치공구팀 △강원관음사 △공주 신광사 △밀양불교청년회(회장 정원국) △안산불교신도회(이사 박정진) △천보사(주지 혜원) △대한불자가수회(회장 진송남) △보은정사포교원(주지 도충) △도서출판 운주사(대표 임희근) △인천 능인사 △경남 무릉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 울산지원 · 대구지원 △인천 구암사 △경기 지산사포교당 △안양 혜안사 △은광구 지장사 △금강사(주지 회일) △경남 송암사 △의정부 포교원 △충남 호국사 △충남 일심사 △천중사(주지 법산) △진각종 신지 삼인당 △해남 대흥사(주지 천문) △성북구 정혜선원 △용화사(주지 성범) △강원도 학무암 △충남 배성사 △진각종 법륜심인당 △경남 해남사 △경남 대원사 △경남 월광사 △종로구 연화사 △울산구치소 △전남 청년회 △용문선원(선원장 부정) △도봉구 성국사 △대전 영선사 △강원 철원포교당 △의정부 법륜사 △경북 대성사 △성북구 청련암 △금천구 묘련사 △경북 약수암(주지 기성) △제주 화엄사 △도봉구 석굴암 △석남불교신도회 △노원구 염불사 △경기 원적사 △충남 원효암 △대한불교약사여래회 △진천 성림사 △경남 소림사 △경북 부기사 △마산 송암사 △강혜영 △이종열 △송춘석 △김광미 △이원용 △김희수 △희은주 △김영선 (무순 · 100매이상)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공동주최 :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이번호부터 본문 활자 커졌습니다

독점 연재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16면



통일기원 만불보전 신축공사 투시도

통일기원 만불보전건립 기원법회 및

현근스님 법어집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 출판기념회

우리 민족은 반세기에 걸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로, 통한의 세월을 인고하면서 통일의 날을 기원해 왔습니다. 더욱이 2천만 불자들은 조석으로 부처님전에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 성취를 간절히 발원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에서 조선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레의 앞길을 밝혀온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 '통일기원 만불보전'을 건립하여 그 공덕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의 법어집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한마음으로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을 위한 초석이 되어 주시고, 법어집 출판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39년 5월 31일

일 시 — 불기 2539년 5월 31일(수요일) 오후 6시

장 소 — 신라호텔 다이나스티룸(전화:(02) 233-3131)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조계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전화:(02)720-1390 / 팩스:(02)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본사 조계사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 추진위원회

조계사 명예신도회장 서 석 재
신 도 회 장 홍성광명 합장

사 설

사찰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자연적인 훼손이 아닌 인위적인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사찰들은 모두가 1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자못 크다.

다시말해 훼손되는 것은 사찰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민족정신인 셈이다. 누가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과 찬란한 문화를 망치고 있는가. 하나같이 세속적 이기심에 물든 '업자'들이다. 골프장 아파트 위락시설 산업폐기물처리장 호텔, 이런 시설들이 왜 사찰의 주변으로 몰리고 있는가. 이제 더이상 잠식시킬 땅이 없어서 사찰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문제는 이미 '적색 신호등'을 켠지 오래 됐다는 얘기일 것이다. 사실 관련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적색'으로 보고 있다.

사찰 주변에 대한 무작정적인 개발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몇가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문화재와 국민정서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찰은 수행처로서의 종교적 공간의미만 갖는 곳이 아니다. 우리 민족문화의 산실이며 전통예술의 박물관 그 자체이다. 그곳에서는 우리민족의 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사찰 주변의 개발사업은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허가' 자체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의 간격유지와 문화재 보호 차원의 종합 검토를 시행한 후에 허가를 하는등의 관계법 제정을 통해 '업자'들의 이기심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찰주변의 무작정적인 개발이 이러한 법적인 테두리가 얇은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우리의 자연재산과 문화재산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 규제의 완화자체가 민주적일 수만은 없다. 강화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강력히 지켜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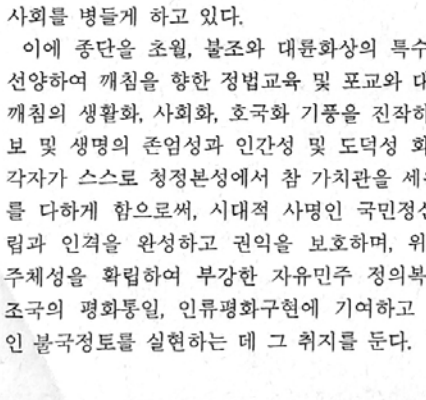
차제에 종단이나 종단협의회등 불교계의 대표적 기구에서는 사찰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세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을 통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찰의 환경은 불교계 스스로가 강력히 지켜 나가야 한다.

불교 환경감시단 만들자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 '불교환경 감시단'등의 전문 기구를 결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전문기구는 '적법'을 내세우는 개발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불교환경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무작정적인 개발을 저지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불교계는 감시단을 결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단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와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불교계를 위한 환경감시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락한 삶과 풍요로운 문화 공간을 지켜주는 기구의 필요성은 더이상의 이유를 들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망가지는 들판, 파헤쳐지는 산맥 그곳에 사찰이 없다 하더라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현 대 만 평 박구원



이런 꼴 나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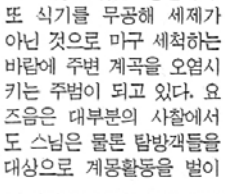
열 린 마 당

사찰환경 훼손

사찰환경이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청정도량이 훼손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높다.

골프장등 요인즐비…국민적 보호운동을

효 림 스님



금년들어 사찰주변이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범어사앞에 대형 아파트, 해인사 인근에는 골프장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발이 환경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심산계곡의 파괴는 물론 도심속의 녹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천년을 이어온 수행도량들도 제 모습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사찰 주변의 환경훼손은 자연뿐 아니라 국민정신의 황폐화까지 부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폐해는 다시 복구하는데 무한의 시간까지 요구돼 시간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허가에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공립공원의 면적축소와 공원내 지목변경, 건축물 개축등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사찰과 불교유적지의 파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석산개발등으로 산천이 파괴되고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이 훼손된 것은 관청의 허가속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지자제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너나 할것없이 모두가 앞장서서 감시해야만 한다.

사찰은 종교를 떠나 민족정신의 맥이 흐르는 성지라 할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민적 성지의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한다. 사찰주변의 환경보호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보광사 주지〉

민족의 성지…사찰·종단 보존에 나서야

고 영 호 부회장



국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정치적 분열, 종교간 갈등, 인종차별로 인한 테러 등 세기말의 상황 못지않게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사찰 주변의 환경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사찰이라고 하면 환경오염 또는 훼손에 있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대사찰의 경우 자연히 찾는 신도수가 많기 때문에 공양후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만만치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또 식기를 무공해 세제가 아닌 것으로 마구 세척하는 바람에 주변 계곡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사찰에서도 스님은 물론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요원한것 같다. 한번 오염된 환경에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은 세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사찰 주변의 환경문제는 여기에 사찰과 종단의 무성의가 한몫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찰을 알리는 표지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좋지않은 모양새로 아무곳에나 설치되어 있다. 그것이 도리어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표지판이 질서있게 설치되어 있으면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

◇ 사찰환경 훼손 주요 일지

89년	전북 무안 승달산 법천사 인근 골재생산
91년	경북 가야산 해인사 국립공원내에 41만평 골프장 허가
92년	충북 제천 송학산 강천사 인근 석산개발, 충북 중원군 보련산 일대 석산개발로 산내 보련사, 원통사등 불교유적지 훼손
93년	서울 봉은사 앞에 은봉고층빌딩 신축허가 경남 군청 의립사 경내 저수지 확장공사 강행 의립사 침수위기, 사찰 진입로 훼손
94년	경북 경주군 감은사지 인근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추진
95년	부산 범어사 앞에 고층아파트 건립추진 파주 보광사 입구 호텔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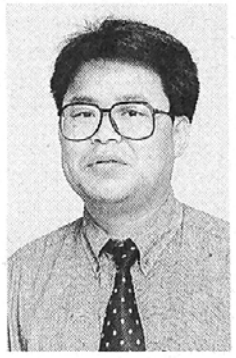
시 론

남북 종교교류 과속은 곤란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 협의회가 추진하는 '남북·해외불교도 8·15 합동법회'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방북 추진은 2천만 불교인은 물론 통일을 바라는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는 때에 비정치적 분야에서 통일추진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할 책무가 있는 불교계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또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통일추진의 장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불교계라는 점에서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분단 50년이란 민족적 결빙기가 서서히 해빙기를 맞고 있다. 분단기간 동안 남북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논쟁 속에서 자기이념만 고착시켜 나갔다. '공산'이니 '자본'이니 하는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보다 더 큰 덩치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왔던 것이 지난 50여년 분단한국사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 논쟁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다.



김 동 윤
〈영남일보 논설위원〉

이제 이념논쟁은 구겨지고 빛바랜 옷일 뿐이다. 세계는 이미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다. 안타깝게도 남북은 국가경영 체제에서 아직 이데올로기라는 허물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은 정치 상황에 비해 역사적 성숙성을 확보하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회복이 그 어떤 이념보다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남북의 종교 문화교류는 이루어져야 한다. 동질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불교는 단연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남북의 공통분모 불교

북한도 이제 종교인들을 적극 통일전선 구축에 활용하려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남북종교교류는 더욱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남북종교교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종교전략전술을 남한의 종교인들은 외면해서는 안된다. 또 우리 종교계가 북측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에 평불협 미주 대표가 방북하여 우리의 '종단협'쪽으로 교류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이후 1천6백여년동안 민족의식을 지배해 왔던 남북의 공통분모가 있다면 바로 불교다. 단순한 신앙차원에서의 공통분모가 아니다. 역사의 영예와 치욕을 함께 해 왔다. 신라의 찬란한 불교문화와 고려의 번영된 불교문화에 남과 북이 따로 없다. 또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하여 부처님의 힘으로 몽고의 침입을 막아보자고 했던 민족적 의지라든가, 승병을 일으켜 민족의 위기에 대처한 불교계의 역사의 지에 남북이 따로 없었다.

북한개방 돕는 물꼬 터야

한국사의 긴 역사진행 과정속에서 남북이 뿌리깊게 하나가 돼 있는 분야가 바로 불교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실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북한사회이지만, 6.25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북한내 주요 사찰을 국가예산으로 꾸준히 보존, 복원 작업을 해 왔다.

또 현재 1만여명의 불교도가 신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50여곳의 사찰에서 실제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 불교의 향내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민족의식을 형성해왔던 '불교적 정서'가 북한인의 가슴에 뿌리깊게 깔려 있을 것이다.

불교계는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깊이 살펴 특색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천주교와 기독교인사 8명이 북한 방문 승인을 받아 5월말쯤 1주일 예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초청을 받았다. 북한 체류중 추진할 계획을 보면 천주교측은 나진 선봉지역에 2백병상 규모의 병원건립등 의료선교쪽에, 기독교측은 교회건립 및 기독교 유적지 복원문제에 각각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도 평불협 방북안이 불교교류사업으로 북측 사찰복원을 위한 불구(佛具)제작 등을 북측에 제의, 북측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았다. 북한의 현 경제적 어려움을 감두에 둔 남측종교계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족적 동질성 회복차원에서 불교계는 보다 거시적 시각으로 북한 불교계와의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남북종교인들의 교류나 접촉에 있어 법적규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방을 돕는 종교교류 쪽으로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계는 민족적 정서면에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교류 초기에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서 앞서가는 남북 종교교류의 장을 신중한 걸음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 고

법인 설립 허가 – 社團法人 大輪佛教文化研究院

상기 법인은 1995년 3월 22일자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취지문

지구촌 국가들은 모두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국민의 생존권을 걸고 몸부림치고 있다. 또한 물질문명과 과학만능 및 이기주의 사조로 인간성-상실시대를 맞으며 갖가지 인재(人災)를 당하고 있다.

인간존엄성과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이상과 현실이 전도되고 아집과 갈등, 이기와 폭력 및 무책임 행위로 국가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에 종단을 초월, 불조와 대륜화상의 특수사상을 연구·선양하여 깨침을 향한 정법교육 및 포교와 대비실천을 통한 깨침의 생활화, 사회화, 호국화 기풍을 진작하고 자연환경호보 및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성 및 도덕성 회복을 일깨우고 각자가 스스로 청정본성에서 참 가치관을 세워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사명인 국민정신 문화창달 확립과 인격을 완성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위대한 민족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부강한 자유민주 정의복지국가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 인류평화구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상적인 불국정토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를 둔다.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종파를 초월하여 불조의 특수사상을 연구, 선양하여 깨침의 생활화, 사회화, 호국화를 함으로써 수승한 민족의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유민주 복지국가건설과 조국의 평화통일 및 인류평화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목적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불조 및 대륜화상의 특수사상 연구사업
2. 세계불교문화의 연구 및 봉안사업
3. 불교정신문화강좌 및 교육 포교사업
4. 불교지도자 육성 및 연수사업
5. 국제간의 불교문화 교류사업
6. 불교사상연구 성과를 출간사업
7. 회원간 상호 부조 및 친선 교류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및 가입절차)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창립취지 및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삭발염의한 승려 및 대륜문손과 전법사 그리고 사회 유력인사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법인의 회원이 된다.

제6조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법인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선거 및 피선거권
3.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리

※ 이하 정관 제8장 제45조 부칙 2조는 생략

임원명단

이사장 德菴 安興德

사무총장 (상임이사)	無空	徐甲生	감 사	鐵華	徐孝欽
			운영이사	梵海	姜大龍
이 사	雲齋	李英茂	운영이사	普經	文富成
이 사	道庵	朴性道	운영이사	梵山	盧 芯
이 사	慧日	康富重	운영이사	慧月	沈貞子
이 사	常虛	趙成敏	운영이사		李慧道
이 사	法蓮	鄭承轍	운영이사		金大心
이 사	고담	李哲雨	운영이사		兪夏雲
이 사	常默	吳光烈	운영이사		鄭護賢
이 사	東俊	安東俊	운영이사		김명철
이 사	明心月	朴明順	운영이사		홍복술
감 사	蕭巖	洪淳兢	운영이사	智弘	劉泰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주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87
전 화 : 733-7274, 733-3733

생로병사하는 연기법칙의 상징

부처님의 지구 사랑 ⑬ 전 재 성

물

물은 물론 자연수를 말하지만, 네가지의 위대한 존재, 즉 땅, 물, 불, 바람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활발하게 천류하고 순환하는 원소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의 흐름은 연기에서의 인과관계의 연쇄에 비유하고 있다.

오염된 물 '무명'…청정수는 열반의 바다에 비유

상응아함경에서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차츰 우렁찬 계곡의 물이 되고, 호수를 이루어 다시 강물로 변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우리의 무명의 빗방울을 조건으로 탐진치의 잘못된 경향이라는 계곡이 생겨나서 물질과 정신의 호수를 오염시키며 갈애와 취착의 강물을 통해 생로병사의 고해에 흘러든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무명이란 오염된 물이 결국 생로병사라는 고통의 바다를 만들어낸다는 심층생태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잘 대변한다. 뿐만아니라 동일한 경전에서 연기법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빗방울을 연유로 즐거움과 청정함의 계곡을 따라 삼매(三昧)의 호수를 거쳐 여실지견(如實知見)의 강물을 통과해서 해탈열반의 바다에 이른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연기법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의해 청정해진 물은 모든 고통의 소멸인 해탈·열반의 바다로 이끈다는 실천생태학의 기본적인 명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에 비유되는 연기의 원리는 세간적인 생성연기를 분석하는 심층생태학과 출세간적인 해탈연기를 실천하는 실천생태학의 기본적 이념을 제공한다. 물은 물 자체로서 언제나 진리를 상징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만물은 유전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비유가 아닌 생태계로서의 자연의 물은 다른 위대한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연기소생으로서 무상하고 괴로운 특징을 지녔다. 이 세상에서 생명체의 출현은, 과학적으로 바다에서의 유기물의 생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불교의 기세인본경에서는 생명이 광음천(光音天)에서의 생존을 버리고 이 세계에 출현한 때에 어둠에 둘러싸인 물만이 존재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물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의 중생의 생로병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태속의 태아가 어머니의 양수라는 바다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과히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부처님은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저 대양의 물은 단지 비유적인 객관 세계의 물이 아니라, 생명체인 우리자신이 윤회의 고통속에서 흘린 눈물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너희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유전하고 윤회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욱 많아서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많은 겁을 지나면서 우리가 흘린 눈물이 빗방울이 되고 빗방울이 모여 계곡의 물이 되고, 협곡의 물이 되고, 지류가 되고, 다시 작은 못이 되고, 큰 못이 되고, 강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어 천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한번도 자신의 눈물이 아니였던 한방울의 물이라도 있었을까? 우리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바다는 생류를 잉태하여 물의 생태계를 전개시킨 것이다. 자연의 물과 인간의 물은 일체이기 때문이다.



◇물의 흐름은 '만물은 유전한다'는 말처럼 인과관계의 진리를 상징한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모든 불교행사가 봉행되는 법회장에서 불자들은 네 가지 큰 서원을 하고 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사홍서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간절한 뜻이 배제된 채 형식적이고 관념적으로 불려지고 있지는 않나 한번쯤 자성해 볼 일이다.

모든 불보살들은 한가지 이상의 서원을 세우고 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을 비롯 아미타불의 48원 약사여래불의 12원등 서원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을 세운 만큼 불자들도 반드시 서원 지녀 신행해야 할 것이다.

서원은 희망이요, 삶의 목표이다. 이기적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원을 세우고 서원을 성취해 베풀겠다는 의지와 절제의 표현이다.

서원이라 하면 '특별한 것' 또는 '특별한 사람의 몫'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스님이나 포교의 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하는 포교사등 특별한 계층만이 갖는 고유한 영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원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승속에 관계없이 불법에 귀의한 불제자들은 누구나 지녀야 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서원을 바탕으로 신행하는 불자들을 보면 언제나 밝고 의욕이 넘친다.

심천사 가족법회에 나가는 신장효씨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족법회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고 있다. 신씨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법회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꾸준히 포교한다면 앞으로 가족법회가 더욱 활성화 되고 불교의 생활화

금주의 주제 서원갖기

불자라면 지녀야 할 삶의 목표

'부처님과의 약속' 최선다해 실천해야

에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정법행보살(관음사)도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처럼 조금이나마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원을 지키고자 정기적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는 이보살은 이웃들에게 서원갖기도 권장하고 있다.

신행활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서원은 빈부귀천이나 개성,기호에 관계없이 불자라면 반드시 지녀야할 중요한 실천덕목임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서원은 자신의 간절한 발원을 올리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다. 입으로만 읊조리는 서원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는, 중생을 위해 회향될 수 있는 서원을 우리 모두 세워야할 것이다.

신행수첩

지친삶에 마음의 평안을
불교발전연, 직장인 법회

쉴새없이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은 쌓인 피로를 녹일 고요한 휴식이 필요하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은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을 영위케 하기위한 '직장인을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

신문로 2가 연구원법당에 무기한으로 매일 점심시간마다 개방되는 이 생활참선 법회에는 매주 목요일 12시30분~50분간 연구원장 김용정교수(동국대)의 반야심경 강의도 계속되어 선(禪)과 교(敎)를 함께 하는 좋은 공부방이 될 것이다. (02)736-6202.

갓바위 수많은 전설 듣다
신행연, 거조암등 참배

우리의 불교문화 속에 깃든 참뜻을 일일히 살피고 살아숨쉬는 불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매월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불교문화기행을 실시하는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 갓바위 거조암 제2석굴암으로 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는 갓바위에 얽힌 수많은 신행담을 비롯 1백8배등 수행을 통해 신심을 다질수 있다.
(02)587-6613

봉사로 꽃피울 불심모아
자비의전화 기금마련전

우리들 마음속의 부처될 성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마음의 모습을 캠퍼스에 옮겨 담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펼쳐낼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수승한 불법실천이 될 것이다.

대구자비의 전화(회장 재원스님)는 개원 2주년을 맞아 봉사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불심전(佛心展)을 개최한다.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대구 황제예식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대구자비의 전화 회장인 재원스님이 직접 제작한 '불심(佛心)'이란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053)426-7488

뜨거운 불심 온누리 밝혀
전국청년불자 등반대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사랑 황혼 꿈 그래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젊음'이 최고의 미(美)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스님)이 전국 불자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불교중흥과 민족중흥의 서원을 다지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덕유산에서 '전국 청년불자 등반대회'를 마련한다.

천도재와 캠프파이어, 공동체 놀이도 뜻깊은 행사이지만 청년불자들의 뜨거운 불심은 온 누리가 부처님 세상임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02)737-0853



◇신라 원광법사의 제자인 의현대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미륵보살이란 전설이 내려오는 팔공산 갓바위.

어린이에 민족의 뿌리·긍지 심어
'동쪽나라' 국토순례단 백두산서 단군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기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 어린이 잡지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 국토순례단은 오는 8월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 연변에 사는 5백여명의 어린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8월15일 백두산에서 단군제를 봉행한다.

광복 50주년 공식행사로는 불교계 유일의 행사인 〈동쪽나라〉 순례단의 이번 순례는 중국 연변에서 연극 '단군왕검(극단 동쪽나라)'을 공연하고 연변어린이 가무단의 공연등 '한겨레 어린이 잔치'가 펼쳐진다. 이어 백두산을 도보등정, 천지에서 '단군제'를 올린다.

이에 앞서 순례단은 7월15일~17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식 겸 수련대회를 갖는다. 시인 고은씨가 안내하는 〈동쪽나라〉 백두산 순례단은 국민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1백명을 선발하며 6월10일 접수 마감한다. (02)263-1387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연주암	3백3십1만4천원
▲조계사	14만3천460원
▲종로 소림사	1백만원
▲성북구 팔정사	2십만원
▲이금굉 권영준 수현	5만원
▲익명의 스님(2人)	1천1백만원
▲익명의 불자	3백만원

〈4월18일~5월 16일〉

*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불교중앙교원)

'茶문화' 대잔치

5월25일 차의 날을 맞아 현대불교가 다채로운 차문화 대잔치를 마련합니다. 그윽한 차향기로 건강과 맑은 불심을 가꾸는 이 잔치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차의 날 기념강좌(1)
- 주제:한국불교와 차문화
- 강사:선혜스님(전통불교문화연구원장)
- 일시:24일 오후 6시30분
- 장소: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차의 날 기념강좌(2)
- 주제:차 예절
- 강사:감승희(차생활교육원장)
- 일시:26일 오후 6시30분
- 장소: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강좌·다구 전시·차밭 기행
24~28일, 녹수청산·쌍계사



◇선혜스님 〈전통불교문화연원장〉



◇감승희씨 〈차생활문화원장〉

그윽한 차향기로 맑은 불심을

▲다구 전시판매 및 시음회
- 일시:24일~26일(오전 10시부터)
- 장소:녹수청산
- 유명 다구제작인의 다구가 차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로 보급됩니다.

▲차밭 기행
- 일시:27일~28일(1박2일)
- 장소:지리산 쌍계사 일대
- 회비:4만원(현대불교 구독자는 3만5천원)
- 출발:27일 오후 현대불교신문사
참가자 전원에게는 현대불교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문 의: 현대불교신문사(737-8881, 722-4162)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속의 불교 ㉖

뿌린 대로 거두는 마음밭 농사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다. 인과의 법칙엔 결코 예외가 없다. 그것은 불변의 철칙이다.
3×3=9인 것처럼.

지은 것은 낱낱이 기록된다. 뿌린 것은 낱낱이 싹이 튼다. 마치 내 속에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하나도 빠짐 없이 기록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풀려 나오는 것과 같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름이야 뭐라하든 무의식의 창고는 용량이 무한대이다.

내가 기록하고 내가 받고,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고……. 어김 없이 그렇게 된다면 어디에다 빌고 어디 가서 구하고, 누구의 탓을 하겠는가. 오로지 내 탓이요, 내 칙임일 뿐이다.

일체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다. 나는 입법자요 집행자이다. 생각을 굴려 설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인생문제에 대한 해답은 자기 안에 있다. 밖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의 탓, 주변환경 탓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공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복을 주는 것도 자기요, 화를 주는 것도 자기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자기요, 회개하는 것도 자기다. 복 많이 받고 싶거든 자기 자신에게 복을 많이 지어라.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답이 있으니 내 마음 밭에다 씨를 뿌려라. 밖에 뿌리면 결코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다.

불법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 항복 받는 것이다. 스승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스승이다.

협찬 : 심경회, 심단회, 심대회, 심우회, 심정회

만암스님, 목련장 추서받아

스승의 날 맞아 광주정광학원 설립 공로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대승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에 헌신했던 광주 정광학원 이사장 만암스님이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추서받았다.

만암스님은 '충(忠) 근(勤) 신(信)'을 건학이념으로 지역 불자들과 함께 1945년에 정광학원을 설립했다. 스님은 1885년 백양사에서 득도, 운문·해인강원등 제산강백,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조계종 종정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교사·학생 신뢰 다지기 30년

총리상 명성여중 강복영 교사



"요즈음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한덩어리로 어우러질 때 우리의 앞날은 밝게 열릴 것입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종립학교 교사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강복영교사(56, 명성여중)는 "불교의 자비와 이타정신을 교육활동에 접목시켜 학생들을 인격형성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66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광동산립중고등학교(현 광동종고)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한 강교사는 30여년 동안 헌신적으로 2세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해 왔다.

강교사는 벽지학교인 광동종고에서 극빈한 농촌학생을 위한 학비 마련, 상급학교 진학지도, 취업 알선을 비롯 건전한 써클활동 추진, 학생선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주력해 왔다.

강교사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가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 표창 종립교 교사

스승의 날을 맞아 모범교사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은 종립학교 현직교사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상 강복영(명성여중) ◇교육부장관상 정탁진(동대부중) 박동원(은석국) 최종천(해동고)◇교육감상 이학용(동대부중) 이승희(명성여고) 박형수(홍제중) 이진호(은석국) 김광수(해동고) 김선종(청담종고) 이운영(보문고) ◇연공상 김정환 김현도(이상 동대부고) 허동욱(동대부중) 이무열(은석국) 최봉준 김동원 이종한 오석부 최영하(이상 해동중) 김옥두(금정중) 이수옥 신명희 이연주(이상 광동중) 이기열(광동종합고) 김난주(광동종합고) 김갑동(광동여자고)최중관(광동여자고) ◇학교장상 장기찬(명성여고) 박영찬(홍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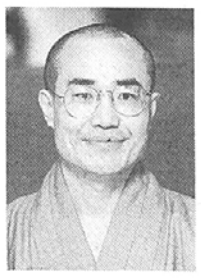
美서 9년만에 디자인 학사

정법 스님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불교의 외형을 한차원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승려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패션스쿨의 명문인 FIT 주립대학에서 디자인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정법스님은 승복, 달력, 포스터 등 불교계의 모든 것을 현대화하고 시각화해 포교에 앞장서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다.

'디자인도 하나의 선수



"시대뒤진 불교감각 한차원 끌어 올릴터"

행 과정'이라는 스님은 "디자인엔 혼이 깃들어야 하며, 여기엔 수행승이 가장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다 확고히 디자인을 통한 불법홍포를 위해 다시 미국에 들어가 컴퓨터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계획이라는 스님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9년을 소비해야 했던 어려웠던 경제적 여건을 떠올리며 앞일을 걱정하고 있다. (02)924-5362

〈한명우 기자〉

교 차 로

'시민운동지원기금' 이사 피선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오후4시 앰버서더호텔 2층 서궁에서 열린 (사)시민운동지원기금 창립설명회에서 이사에 선임되는 한편 이날 축하리셉션에서 축사를 했다.

동국대 정각원서 법문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은 오는 6월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생활불교와 의식불교'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칠순기념 사군자·선서화전



송월(淞月)스님은 칠순기념 사군자·선서화 특별전시회를 이달 31일부터 6월6일까지 백상갤러리(720~814)에서 갖는다. 송월스님 문도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 스님은 대나무 연꽃 매화등의 선화와 금강경 반야심경 병풍등의 작품을 내놓는다. 스님은 95년 전국미술전람회에서 서예부문 특선을 한 이후 수차례의 개인전과 특별전, 자선전을 개최해 왔다.

학생·직원과 건봉사 순례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지난 12·13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건봉사로 학생·직원 80여명과 함께 '춘계명찰순례'를 실시.

관음대비원 10돌 법회



임조스님(관음대비원 원장)은 지난 21일 관음대비원 창립10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관음대비원에서 가진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법정스님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서옹스님(백양사 조실)이 법어를 했다.

신임 스리랑카대사 환영회



한갑진씨(한진흥업대표, 한국 스리랑카협회장)는 지난 23일 세네비라트네 신임 주한 스리랑카대사 취임 축하환영회를 개최했다.

지용제서 嗚 '발열' 발표

안숙선씨(불자국악인)는 지난 13일 충북 옥천에서 열린 지용제(芝溶祭)에서 정지용시인의 '발열(發熱)'을 창으로 엮어 발표했다. 지용제는 고 정지용시인을 기리는 축제로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았다.

불교의 효사상 주제 발표



L. 랭카스터교수(미 버클리대)는 지난 15~17일 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서 열린 '효사상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불교에 있어서 효사상의 역할'을 발표했다. 랭카스터교수는 "미국의 독특한 상황에서도 효사상은 보편성과 실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과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정관수회장(대한불과회)은 지난 19일 오후2시 대전 심광사에서 대한불과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만해스님 추모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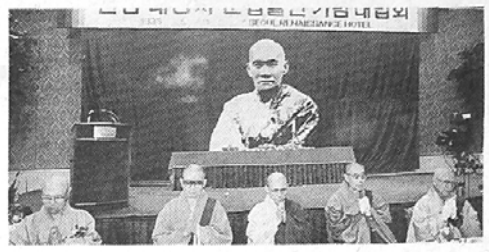


김용직회장(전국불교신도단체연합회)은 오는 6월17일 오후3시 동국대 대강당에서 '광복 50주년기념 및 만해 한용운스님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이천 도자기조합 초대회장



이은구씨(도예가)가 1백50여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천 민속도자기협동조합 초대회장에 선임됐다. 이은구씨는 인사말을 통해 "불심으로 그릇을 빚듯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암스님 법어집 '일발록' 출판기념회

조계종 초대종정을 역임한 한암대종사의 법어 서간문등을 모은 〈한암일발록〉 출판기념법회가 지난 11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한암스님 탄신 1백20주년, 열반 45년을 맞아 봉행된 이날 법회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과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 봉암사 조실 범룡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 불교TV 사장 태응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동국대역경원장 월운스님 등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련기사 12면〉



남경대 취췬위 총장 동대 방문

중국 남경대학 취췬위총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동국대 송석구총장을 예방, 양교 교수간의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했다. 이어 취췬위 총장은 총학생회가 주최한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양교간의 문화 학술적 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종도 지도자 연수교육

한국불교 법륜종(총무원장 일화스님)은 지난 11·12일 양일간에 걸쳐 대전 신흥사에서 제7차 법륜종도 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종정 금암스님, 총무원장 일화스님, 연수원장 무주스님, 포교원장 혜봉스님, 기획처장 탄공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민불련 봉은사서 창립10주 기념식

민중불교운동연합 10주년 기념사업회는 지난 13일 봉은사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기념공연을 개최했다.

91년 3월 해체된 이후 처음으로 행사를 가진 민불련은 그동안 발행했던 기관지와 신문을 최근 영인해 합본호로 발행한 '민중불교'를 부처님께 헌상하는 고불식도 봉행했다.

전문직 활용 그늘진 이웃 돌봐

판사·의사·교수등 50여명… 무료변론·진료등 자선사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정목회 회원들은 요즘 육조단경등 경전공부에도 한창이다.

탐 방

정목회

목멱산자락에 장엄하게 자리잡은 동국대 정각원에 고희를 눈앞에 둔 불자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불전강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염불소리가 오가는 동대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이 모임은 검사 교수 판사 의사 실업가등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신행의 길잡이인 정목회(회장 유순현)이다.

지난 83년 초겨울 자선사회사업 정기법회를 비롯 자신들의 전문직을 활용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법을 홍포한다는 취지로 발족, 12년여동안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오고 있다.

50여명의 옹골찬 회원들로 구성된 정목회는 최근 깊이있는 불교공부를 통해 친근감 있고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한다는 또다른 서원을 세우고 불전공부에 열심이다. 금년초부터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육조단경을 공부하는 회원들은 앞으로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등 팔만사천의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섭렵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히 정목회는 자신들의 전문영역을 사회에 다시 회향한다는 신념아래 가정형편이 어려워 마음놓고 병원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무료진료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변론 등을 펴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목회는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보육원, 무의탁 양로원등 복지시설을 방문, 자애로운 부모도 되고 때로는 응석부리는 아들로서 풋풋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준다.

더욱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건강요법을 일일히 지도해 주고 있어 정목회가 찾아오는 양로원 노인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정목회는 년 2회 성지순례를 통해 대덕스님을 친견 감로법문을 청해 듣는 한편 매월 발간되는 회보를 통해 회원들의 신행담,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의 애정어린 포교성공담 등을 연재해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신심을 다지고 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유순현씨(경기대 교수)는 "전문직업인들의 모임인 만큼 회원개개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일반불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포교영역을 개척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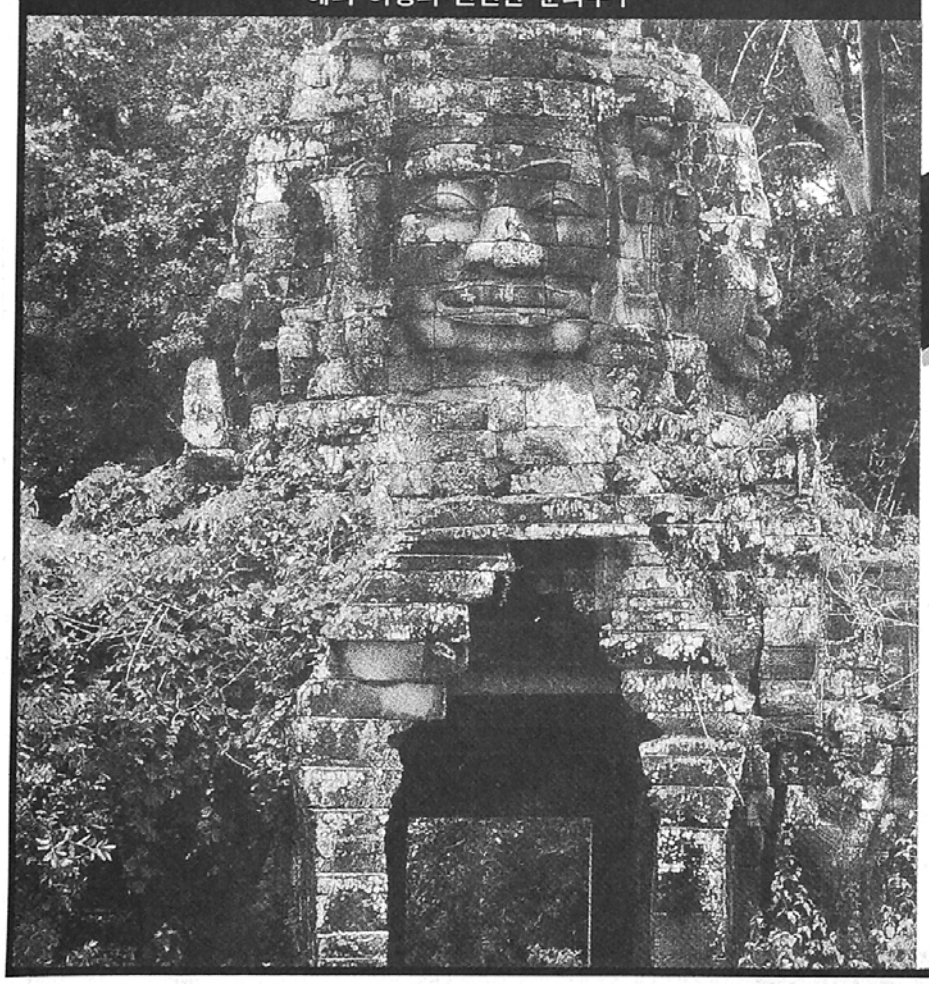
게시판

▲간사 모집=우리는 선우가 간사를 모집한다. 불교활동에 원력이 있는 여성불자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면 더욱 좋다. (02)278-8672~3

▲법어집 출판기념회=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은 〈중생의 삶·깨달음의 길〉 출판기념회를 오는 31일 오후6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갖는다. (02)720-1390

화 촌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의 장녀 진희양이 오는 31일 오후6시30분 공항터미날 3층 컨벤션센타에서 엄순찬씨와 화촉을 밝힌다.

해외 여행의 건전한 문화추구



가격 파괴

"항공사와 독점판매"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 순례 大 특선

동 참 금 : 96만원 (1인당)
출 발 일 : 수·금 수시 가능
순례기간 : 5일간
적용기간 : 95년 6월 1일 ~ 6월 30일

일 정

서울-프놈펜(왕궁, 킬링필드, 실버파고다 등)-앙코르 유적지(앙코르 왓트, 바이욘, 타프롬, 바콩, 프라코 등)-호치민-서울

1995년 6월 1일부터 폐사가 취급하고 있는 "앙코르 유적지" 상품가격이 여러분들의 기호에 부응하고저 인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봉은여행사의 보다 나은 질적 여행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출발 및 여행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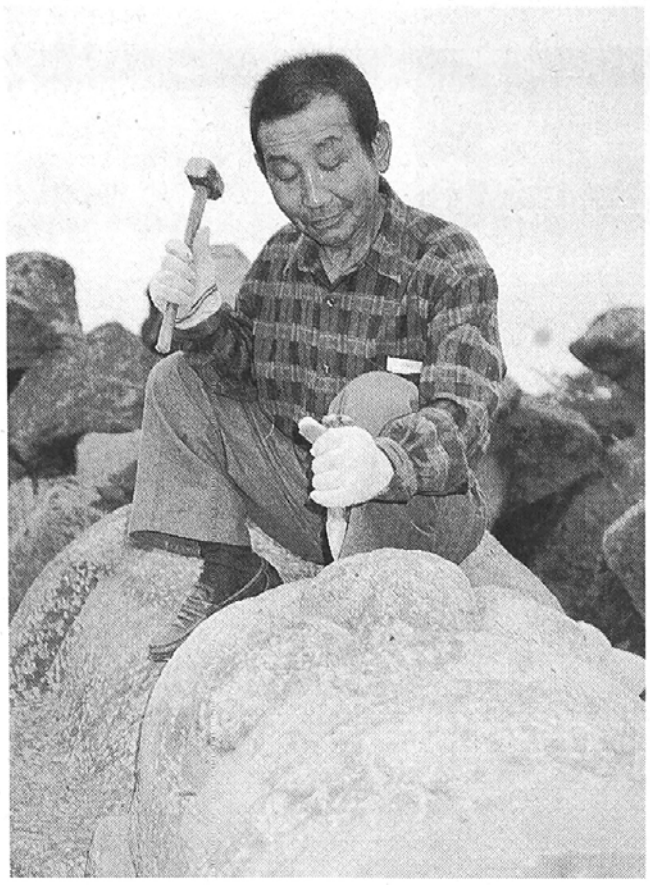
전 일정 특급 및 일급호텔 사용(2인 1실), 전 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항공편 및 현지 전용버스 사용, 전 상품 전문 안내원 동행, 최소 출발인원 10명, 해외여행 보험자동가입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주)봉은여행사
문의전화 (代) 545-009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10 소암빌딩 3층
국외여행업 제543호 국내여행업 제475호

"망치가 목탁…망상들면 돌에 상처"

산문밖의 禪

돌 하르방 명장 장공익 씨



"돌 하르방은 고통받는 이들의 미륵불이죠"

돌장이 40년…혼 불어넣기 '평생작업' 발원

"제주도를 찾는 신혼부부들은 돌 하르방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에 따라 하르방의 큼직한 코를 만지곤 합니다. 아들을 낳고자 '돌 미륵'의 코를 갈아마셨던 옛사람들이나 돌 하르방의 코를 만지는 현대의 젊은이들은 돌에서 무엇을 접했다고 생각합니까?"

석암 장공익(石岩 張公益, 65). 제주를 상징하는 돌 하르방 제작의 1인자(명장 93-16호)인 장씨가 의문 하나를 던져놓고 말을 이어간다.

"하르방은 제주를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부처님 땅을 지키는 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있어야 해요. 혼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돌 미륵, 돌 하르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엔 두툼한 벙거지를 쓰고 부리부리하게 쳐다보는 눈, 굳게 닫은 입, 갸우뚱한 얼굴에 머금은 야릇한 미소, 전체적으로 강직하면서도 어리숙해 보여 모든 것을 받아줄 것만 같은 돌 하르방. 제주의 돌 하르방은 고을에 들어선다는 이정표 역할과 고을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 그리고 호열자 같은 악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주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마을지키는 수호신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신비에 싸여 있는 돌 하르방은 현재 제주시와 성읍, 모슬포에 45개가 남아 있다.

"제주시의 것은 목사가 살던 곳이어서인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성읍은 군수가 살던 곳이어서 크기가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모슬포는 더 작은 고을로 생김생김이 투박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특히 모슬포의 돌 하르방은 한쪽 손이 치마를 가린 듯해 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장씨는 세련된 제주시의 돌 하르방보다 성읍과 모슬포의 하르방을 좋아한다. 작지만 표정 하나하나에 옛 서민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 수가 없다. 지역마다 돌 하르방의 형태가 다르다는 분석만으로는 장씨가 말하는 돌속에 스며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감이 안온다.

장씨의 형제는 12명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형제는 모두가 일찍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다.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법당을 조성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생명줄을 이어온 장씨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느끼며 살아왔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정녕 나의 생명을 부처님이 연장해 주는 것인가' 어린시절 장씨는 한시도 이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달리 손재주가 있었던 장씨는 재질이 약한 제주의 돌에 부처님을 새기고 향로를 새겼다. 부처님의 가피로 생명이 연장된다면 혼신을 다해 불상을 조성하고 더 많은 이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장씨는 '불상은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체'로 생각한다.

"불상과 돌 하르방은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지요. 중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천개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돌 하르방도 유달리 손이 크답니다. 제주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듬어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에게 하르방은 곧 부처님입니다."

장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스스로 대장장이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만해도 돌을 만지는 이를 '돌챙이'라며 천하게 여겼다. 생명을 이어주는 또다른 불상인 돌 하르방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더 많은 이들이 살아있는 돌 하르방의 원력으로 이땅에 정토가 오기를 바랬다.

돌 하르방을 만들어 보급하고자 원력을 세운지 벌써 40년.

장씨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왔다. 밤이면 법당 부처님전에서, 낮에는 작업장에서 일념으로 돌 하르방을 조성했다.

장씨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먼저 법당을 조성하고 작업장을 마련했다. 현재 살고 있는 제주 한림의 작업장에도 석굴암이란 알자를 창건했다. 장씨가 기거하는 숙소는 법당옆에 달린 작은 방이다.

암자세워 포교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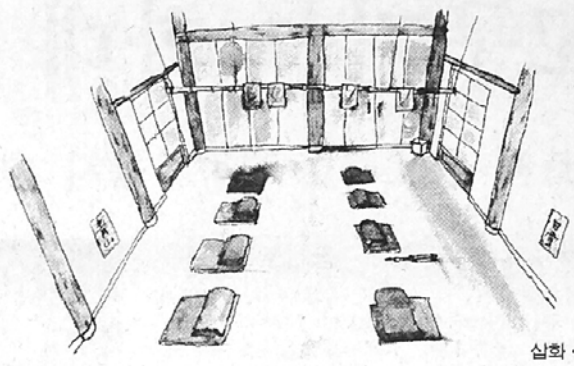
근래에는 인근 지역에서 신도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아 장씨가 포교사를 겸하고 있다. 신도가 1백60여 세대이고 보니 시골 암자치고는 꽤나 알찬 법당이다.

"저는 법당에 들어서면 목탁을 치고 작업장에서는 망치를 잡습니다. 망치가 곧 목탁이지요. 망치질을 할 때마다 염불을 합니다. 그래야 잡념이 생기지 않고 정끝으로 균일하게 돌을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상이 들면 망치가 힘의 균형을 잃어 돌을 내리치게 됩니다. 여인네가 얼굴에 분칠하듯 다독거리지 못하고 상처를 내고 말지요."

장씨는 예전의 돌 하르방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고 한다. 더도 덜도 않고 망치질이 적당하게 되어있는 돌 하르방은 신의 작품처럼 찬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씨는 돌 하르방을 만들었던 선인들이 제주고을의 목사나 군수보다도 더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많이도 만들었습니다. 큰것 작은것 합치면 20만개가 넘을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있게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는 쉽게 보이지만 하르방에 혼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살아생전에 한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한림=이준엽 기자



십화 · 이기선

마음 내돌리지말고 새롭게 入道

있는 자리에서 안거에 들자

스님은 어디서 한철 나셨습니까. 아니 스님은 어느 절에서 안거(安居)를 하였습니까. 여기서 한철이란 말과 안거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철이라고 하면 여름 한 철 겨울 한 철, 이 두 철 동안 사찰의 선방에서 외부에 출입하지 않고 참선에 집중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한철 났다고 하면 선방에서 수행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교단의 수행법은 특이한데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10월 15일에서 1월 15일까지 두차례 수행하는 기간이 있다. 4월에 시작하는 수행기간을 여름안거라고 하고, 10월에 하는 것을 겨울안거라고 한다. 공부하러 가는 기간, 즉 공부하는 기간을 결제(結制)라고도 한다.

스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정된 계율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고 따로 제정된 틀을 벗어나서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거동안을 결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욱더 제약적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결제기간 동안은 용상방(龍象傍)을 짠다. 기구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선방대중이 함께 모여 조실, 선덕 유나를 비롯하여 주지, 화주, 도감등 한철 날 수 있도록 각자 소임을 맡는 것이다. 이 소임의 직책을 조직하는 것을 용상방, 또는 육색방이라고 한다.

철저한 규칙따라 생활

선방 생활은 철저한 규칙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물이 조용히 흘러가듯, 작은 시내, 큰 개울, 강물이 궁극에는 큰 바다에 흘러들어가 한 맛이 되듯이 그 물들은 작은 시내이던지 큰 개울이던지 넓은 강물이던지 한사코 제 본분을 다하면서 조용히 흘러가야 한다. 제 갈길을 벗어나면 그 물들은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물은 흘러가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꾸준히 천천히 쉬지 않고 흘러 흘러가야 한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㉗

결제(結制)

삼매들면 세상도 침묵

수행자는 폐관(閉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밖에서도 자물쇠를 잠그고 안에서도 문고리를 걸어붙여야 한다. 안팎으로 열려 있는 경계에 살면 일심정행이 되지 않는다. 무문관(無門關)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모퉁이도 나아갈 수 없는 선반에서 부동의 자세로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무엇을 항복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되새겨질 것이다.

우리는 결제기간동안 한번 앉아 보아야 한다. 우리 한국의 모든 스님들이 한 석달동안 침묵의 자리에 앉아 바람같은 호흡을 정일하게 침잠시키고 있다면 하늘과 산천초목도 침묵할 것이다. 세상이 시끄럽고 분탕거리는 것은 들뜬 마음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사부대중이 세상사 만물사중 다 놓아버리고 해인삼매의 수정(修定)의 세계에 들어버린다면 한철동안 자연도 세상도 침묵할 것이다. 침묵은 모든 것을 가라앉히고 본래 면목을 발행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참선정혜가 있는데 어디서 빌붙고 있는가.

결제안거, 이것은 불교가 가장 소중하게 내어보인 수행의 길이다. 우리 모두 결제의 한 철을 수업하는 불자가 되자. 4월에 시작하는 결제에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흘러가는 물줄기는 수행하는 길과 같은 것이다. 선방에 방부한 스님들은 한철동안 물이 되고 산이 되어 가만히 있을 때는 부동한 산이 되고 흘러갈 때는 마음의 자재성을 드러내면서 유연하게 청규법도를 어기지 아니하고 가만히 흘러보내야 한다. 마음의 유연성이 공부의 길이다. 마음이 고착되고 굳어버리면 정착심이 붙는다. 삼개월동안 물같은 마음으로 자재하게 되어야 한다. 안거 결제는 인간이 새롭게 되는 길목이고 청정삼매를 누리게 되는 입도(入道)의 길이다.

성철스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몸뚱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망상의 대상과 접상(接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상의 횟수가 많으면 그곳에 안착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사실 안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망상과 함께

대흥사 여름수련회 수련생 모집

4박 5일 **대흥사 여름수련회**를 엽니다. 일상의 틀을 벗고 금부처님 모셔내어 빛바다에 멱감는 환희로운 이 법석에 동참할 수련생과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우측과 같은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 1차는 6월 20일까지, 2·3차는 6월 26일까지 우편 및 팩스로 보내십시오.(FAX 접수자는 필히 전화 확인 요망)
* 기재사항 부실한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 1차는 6월 24일까지, 2·3차는 6월 30일까지 동참 가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동참이 확정된 후 동참이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 준비물:1. 필기구 2. 세면도구 3. 침구 4. 손전등 5. 동참금 4만원(자원봉사자는 없음, 교재대 포함)
* 문의처:종무소 전화:0634-34-5502, 5503
  팩스:0634-35-5357

교통편
서울에서 고속버스편:강남터미널 호남선-해남(5시간 30분 소요)
5회:7:55 / 9:30 / 11:00 / 14:10 / 16:00 / 17:55
비 행 기 편:서울-목포(50분 소요) / 목포-해남(1시간 소요)
광주에서 직행버스편:해남(1시간 40분 소요) 20분 간격
해남-대흥사:버스 25분 / 택시 15분

Foreigners are requested to contact Jisu Sunim for detail.
TEL.0634-34-5502, FAX.0634-35-5357

일정표

차 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일	대 상
1차	7월 2일(일) ~ 6일(목)	30명	6월 20일	19세 ~ 50세
2차	7월 9일(일) ~ 13일(목)	30명	6월 26일	19세 ~ 50세
3차	7월 16일(일) ~ 20일(목)	30명	6월 26일	19세 ~ 50세

신청서 양식

1. 이름:한글	한자	불명	성별:남 여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		4. 전화 및 팩스:	
5. 직업:	6. 종교:		7. 희망기간:제 차
8. 참가 소견: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보낼곳
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장춘동
대흥사 수련회 담당자 귀하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대둔사) 주지 석천운

"교구기능 확대 지역발전 열쇠"

향토애·정토사상 접목 … 복지·환경운동 앞장서야

'지방자치시대와 불교' 공개토론회

6월27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의 공개토론회가 열려 교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 12일 조계종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지난해 조계종 개혁을 주도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청화·지선)가 '지방자치시대와 불교; 지방화시대,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주최, 지방자치시대에 불교가 보조를 맞춰가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심익섭교수(동국대)는 '지방자치시대와 불교'란 발표문을 통해, "고통속의 중생을 구원하고 불국정토를 구현한다는 불교의 기본 논리는 향토애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정신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지방자치의 기본논리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교수는 "지방자치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한국지방자치이념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정신적 지주역할을 불교계가 담당해야 한다"며, 대내적인 과제로 △종단조직의 분권화 △기획능력 제고를 통한 교구자치기능의 확대 △신도회 운영의 합리화를, 대외적인 과제로 △지방정치발전 및 지역발전의 지원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불교사회복지체계의 구현 △지역환경운동 참여 △문화재 보존과 지역문화발전 지원 등을 들었다.



◇지난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시대와 불교의 역할' 세미나. 사찰이 지역주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효림스님(실천승가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 불교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통해, "이제 불교계는 개혁된 힘을 사회로 되돌려 노인정 및 탁아소를 운영하는등 사찰이 지역 대중에게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시대의 불교'를 발표한 영담스님(사회문제연구소장)은 한국불교가 지역자치시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단위사찰 차원에서 △포교활동을 통해 다수의 신도를 포용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 △각종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사회문화활동에 대한 신도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53佛 신앙의 史的가치 조명

불교학회 세미나, 지난 20일 삼광사서

한국불교의 전통신앙인 53佛 신앙을 불교사 및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20일 부산 천태종삼광사(주지 춘광)에서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가 '53존불 조상(彫像) 9층8면탑의 사상사적 의의'란 주제로 연 이번 학술발표회는 현재 대웅전 옆에 9층8面의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 그 탑신(塔身) 각 면에 53부처님을 새겨 모시는 불사를 진행중인 삼광사에서 열려 그 의의를 더했다.

'53존불신앙과 천태종과의 관계'를 발표한 김영태(동국대)교수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불교신앙의 전래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옛 신앙설화 가운데에는 53불의 도래(渡來)가 그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며 53존 불상도래의 연기설화를 소개했다. 즉 공식적인 불교전래(372)보다 무려 368년이나 앞선 신라 남해왕 원년(A.D.4)에 강원도 고성(당시 安昌縣) 해변에 53불이 쇠종(鍾)을 타고 인도(月氏國)로부터 건너와(浮來)서 물에 올라 금강산으로 들어가 현재의 유점사(楡岾寺)터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

김교수는 "10信 10住 10行 10廻向 10地 等覺 妙覺의 보살수행 52단계에다가 그 위계를 초월한 佛의 과위(果位)를 합친 숫자가 53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도 이영자(동국대)교수가 '법화경과 탑과신앙'을, 홍윤식(동국대)교수가 '한국의 다면다층석탑 연구', 채상식(부산대)교수가 '9층 및 8면탑의 한국불교사적 조명'을 각각 발표했다.

"종교인, 북한통일전술 파악해야"

북한硏 고태우씨 한국종협 조찬연구회서 발표

"북한의 개방을 돕는 의미라면 남북교류에서 권장할 만한 분야는 종교인간의 교류이다. 종교인들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현상황에서 북한에 포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고태우씨(북한연구소 연구부장)는 지난 20일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조찬연구회에 참석, '남북종교인 교류의 문제점과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씨는 "당국에서는 종교인들을 교육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남북교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남북간의 종교교류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정부의 대북정책과 종교계 일부와의 견해차이의 노정 △남한 종교계의 제각각의 목소리와 개별적인 접촉시도 △(평양 단군릉 같은)민족 정통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통일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 △정부의 방북 지침(가칭)이 부재한 것 등을 지적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명부전(冥府殿)

慈因積善鉴救衆生
(자인적선서구중생)
懺切歸依奚遲感應
(당절귀의해지감응)
掌上明珠光攝大千
(장상명주광섭대천)
手中金錫振開玉門
(수중금석진개옥문)
常揮慧鎰斷滅罪根
(상휘혜일단멸죄근)

業鏡臺前十殿調律
(업경대전십전조율)

자비의 인연으로 적선하고 중생구제를 서원하니
간절히 귀의하면 어찌 감응이 더디리오.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 대천세계를 비추고
손안에 쇠지팡이는 지옥문을 열어주네.
항상 지혜의 칼로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업경대 앞에서는 시왕(十王)이 법률로 다스리네.

통도사

해설 통도사 명부전은 대웅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초창되었으나 중건중수의 기록은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명부전의 명부란 저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부전은 지옥세계를 관장하는 전각을 뜻한다. 중앙의 지장보살과 좌우에 5개씩의 시왕탱(염라대왕을 포함한 십대왕의 그림)을 안치한 것이 명부전의 내부 구조다. 시왕탱에는 죄인들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같은 명부전 내부의 구조와 내용은 전각 앞에 걸린 주련의 의미를 이해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앞의 두 구절은 지장보살의 원력과 덕화를 표현한 것이고 다음 두 구절은 위신력을 나타낸 글귀이다. 지장보살은 알려진 대로 지옥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지옥계를 제도한다는 큰 원력을 가진 보살이다. 그러한 보살의 손에 든 구슬과 쇠지팡이는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두 구절은 지장보살의 지옥중생 구제와 명부(저승)에서 죄를 심판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련의 내용은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 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승에서의 삶은 언제나 죄의 연속이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옥중생 구제하는 지장보살 찬탄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본래 공부했는데 그걸 모르니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것부터 알아야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된다는게 무슨 운동 열심히 해서 근력이 강해지듯 그런게 아니지요. 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잘 안풀리고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아마도 공부가 안되기에 그런가보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나온 자리에 맡겨 놓아야 바른 공부가 됩니다. 공부하는 그 '나'마저도 공이어야 합니다.

마음공부가 잘 안되는데…

문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제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효경·인천시 북구 효성동〉

답 어느 때인가 내가 한 불제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 잘해나가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했더니 '그냥 합니다'라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그냥? 그래 그냥 그냥이야. 그냥해도 안돼고 그냥 그냥이지. 그대로 해봐'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있던 사람이 무슨 말이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물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주었습니다.

늘 그랬지만 생활하면서 앞에 닥치는대로 주인공을 믿고 놓으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보·유전·영계·인과성의 문제가 다 녹아내려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여기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세요. 국민학생이 대학엘 가려다. 잘 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놓고 잘 안된다고 여겨질 때는 이것 또한 마음을 갈고 닦는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해서 놓아야 합니다. 안되는 일을 두고 언짢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는 것도 법이요,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가령 회사를 경영할 때에 사람마다의 능력에 따라 높이 쓸 사람은 높이 쓰고 낮게 쓸 사람은 또 낮게 써야만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질 못한데서야 어떻게 회사를 잘 경영한다고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놓고 배우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대로 놓고 배워야 합니다.

악도 선도 공부차원에서 보면 다 놓고 배울 재료입니다. 그리고 놓고 가다보니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붙잡고 매어달릴 게 없으니 '평상심이 곧 도'라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중생들도 다 편안할 것이니 닥치는대로 놓고 갈 수 있어 좋지요.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본래 '나' '나의 것'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으니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라, 나를 만든 것도 주인공,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주인공, 일체가 다 주인공의 몫이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다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해도 겁내지 않고, 죽는 것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일 때 그 편안함이 최고의 편안함이며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빼놓지 않고 머리만 굴려 대니까 요렇게 할까, 조렇게 할까 하며 제법 영악한 생각만 하려 듭니다.

또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일임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타종교의 절대자와 비슷한 소리를 한다, 절대자를 이름만 바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서 날보고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빗나간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란 본래 공한 것입니다. 찰나찰나 쉬지않고 돌아가기에 고정되게 '나'라고 할 그 무엇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삼아 '나는 누구인가?' 또는 '이 뭐꼬?'를 참구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구하고 보니 공(空)이란 말입니다. 나를 형성시켰고 오묘하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 했고 개별적인 무엇으로 알까봐 주인공의 공을 빌 공(空)자로 썼습니다.

참구끝에 공(空)을 알았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하, 나라고 할 것은 본래 없구나.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구나. 살고 죽는 것도 매달릴게 못되는 구나' 하겠지요. 정말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서울 가는 길로 바로 가라는데 왜 그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철석같이 믿으라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도 아니고 '해주십시요'도 아닙니다. 철석같은 믿음입니다.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에 놓는 게 '구함'이 아닌지

문 스님께서는 여러 갈래의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아나가면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편안해진다고 하십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해지는 방편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인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경계를 구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잘못이 아닌지요?

〈강천주·부산시 남구 우암동〉

답 놓으려면 믿어야 하고 믿는다면 몰락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놓는게 못되지요.

잘 되는 것, 잘 안되는 것 다 놓아야 합니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 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콩어회·조유어·북어뜯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사찰터 임야 9천평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7천명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하고 염불에 능한 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불심포교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2동 484-10
전화 : (051) 465-5100, 467-5200

관절염 암
샤크리지(SHARKLAGE)
100% 상어연골로 해결하십시오!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다른 기관으로 전이를 멈추게 함(ANTIANGIOGENESIS 작용)
•연골의 퇴화를 억제하고 새로운 연골의 생성을 촉진시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치료를 향상시키며, 세포분열을 억제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각종 바이러스를 없앰.
※ 본 제품은 천연의 단백질, 칼슘, 탄수화물, 인,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수입판매원 : (주) 도백 식품사업부
Tel. (02) 540-7749 (代) / Fax. (02) 540-7779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 (02)552-1470(대) / 팩스 :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엄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 (서클상사)
전화 : (02)556-3076~7 팩스 : (02)556-3078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친절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강정교사」(개인지도용) 특별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원(남, 27세)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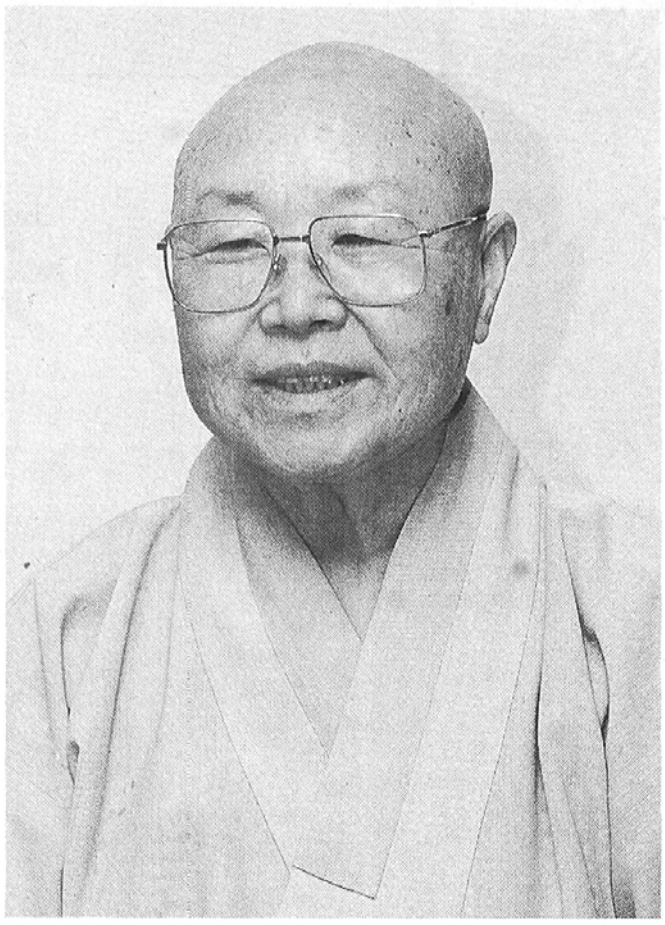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수요인터뷰

전국 비구니회 5대회장에 선출된

광 우 스님



지난 18일 목동청소년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 비구니회 총회는 신임회장에 광우스님(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선출했다. 이날 스님은 117표를 얻어 제5대 회장에 선출됐지만 회장직을 고사하고 있다. 비구니회는 광우스님의 고사로 인해 오는 26일 회장단 및 운영위원·지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회장 선출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약 력

- 1925년 경북 선산 生
- 1938년 직지사에서 성문(性文)스님을 은사로 득도
- 상주 남장사 관음강원 대교과 졸
- 1956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
- 1977년 운문사 강원장
- 현재 정각사 주지,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첨단 시대 맞는 교육·전법 펴야죠"

힘모아 회관 완공…지역 사회의 '慈母' 돼야

—계속 고사를 하시니만큼 '축하드립니다'란 말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이도 많고 (71세), 다른 계획도 있어서 총회전부터 추천도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번 얘기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비구니회의 위상도 높아졌고 비구니들의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만큼 70세가 넘은 사람을 회장시키지 말고 젊은 사람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원은 4월말 현재 2천3백83명이지요. 전국에 비구니스님들이 총 4천8백여명이라니 전 비구니의 절반이 우리 회원이라 생각됩니다.

—비구니회 전신인 우담바라회를 만드신 발기인중 한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24년전인 지난 1971년 우담바라회가 창립될 때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보았지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비구니계가 활발하지 못해 학교다니는 비구니스님은 찾아보기조차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들을 단합시켜 교육도 시키고 종단을 위해 무언가 해보자는 취지아래 우담바라회가 창립된 것이지요. 포교에 있어서는 비구니가 훨씬 유리합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마하파사파티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에게 훌륭한 대법사가 되고난 후 많은 중생을 제도하라는 수기를 주고 있습니다. 법사로서 중생교화하는데 비구니가 더욱 유리하다는 걸 부처님께서도 확신하신 것이지요.

요즘은 첨단시대인 만큼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 포교방편이 다양합니다. 비구니들이 열심히 공부해 포교일선에 나서서 전법을 열심히 해야하겠지요.

—목동청소년회관에 이어 비구니회에서 지난 3월 17일자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셨지요. 오는 6월 1일 개관하십니까.

▲직원도 공개채용하고 개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규 회원이 되려는 구민들이 정수를 넘어 걱정입니다. 3천명이 한도인데 지금 1만8천명을 넘어섰어요. 체육센터를 잘 운영해 목동청소년회관에 이어 알찬 포교센터로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비구니회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담바라회에서 비구니회로 이름을 바꾼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는 데요. 비구니회의 숙원사업인 비구니회관 건립이 올해 본격화할 예정이라는데 건립추진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대지매입에 지금까지 2십4억2천여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10억3천여만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 시공에 들어가 내년 8월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건립비 총액으로 70억원을 잡고 있는데 재원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2천7백평으로 지상 1층은 대강당 및 복지시설 2층에는 회의실 도서관 자료실 사무실 3층은 교육실 선방 연구실 4층은 기숙사로 5층은 만분의 부처님이 모셔지는 법당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비구니회관은 비구니들의 교육과 포교의 중추기관으로서 마음놓고 수행과 정진을 할 수 있는 곳임은 물론 사회복지센터로 중생구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회관은 전국 비구니들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만 예정대로 순조롭게 건립될 것입니다.

회관이 완공되면 전둔적이고도 다양한 포교 교육을 실시해 포교사를 양성 전국의 비구니 사찰만이라도 의무적으로 포교사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팔경계 논란' 해결 기대

—총회에서 총무원장스님도 언급하신 문제인 '비구니 팔경계가 비불설이다'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 비구니계에서 적극 밝힐 용의는 있으신지요.

▲율원에서 징계 운운하는 것 보다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해 논술적으로 근거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학문적으로 논란이 이는 것은 학문적으로 풀어가야겠지요. 종단에서도 비구니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비구니 팔경계'논란도 종단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펴주어 좋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새 집행부에 대해 비구니스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게 잘 될것 같습니다.

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철회 〈한국 인성개발원장〉



나는 학창시절에 장차 법관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부할 곳을 찾아 다니다가 조용한 산사를 찾게된 것인데, 그 인연으로 불교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물론 근본적인 동기는 부모님이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나도 성장과정에서 그 영향을 받아 자연히 불교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산사에서 스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불교경전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는 부처님의 정법인 인연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불법을 만난 후부터 생활방식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여 언젠가부터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을 연기적사고(緣起的思考)에 의하여 처리하는 습관이 배게 되었다.

내가 불교에 입문한지도 어언 30년이 되었다. 그 긴 세월 속에 한국불교청년회장을 역임했고, 1974년에는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신도회장에 취임함으로써 불교와 더욱 깊은 인연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상담·문서포교 통해 내 삶도 '청정'

산사서 고시공부하다 부처님 진리와 첫 인연



당시 태고종에서는 용태영 변호사(수도변호사회 회장)를 전국신도회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용변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 나를 소개한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그때부터 용태영 변호사와의 인연은 이어졌다. 1973년 3월24일 당시 수도변호사회 회장이었던 용변호사는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성취를 초발심으로 서울고법 특별부에 석가탄신일 공휴일 확인등의 청구소송을 낸 일이 있었는데, 1975년 2월15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다. 한때는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되었을 때 나도 함께 밤을 지새우며 고통을 나누었던 그 인연이 추억으로 떠오른다. 이 나라 불교 사상(史上) 천추만대를 이어갈 불후의 위업을 남기신 용변호사의 공적을 잊을 수가 없다. 사월초파일을 맞을 때마다 그때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내가 태고종 전국신도회장직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보람으로 느꼈던 것은 1984년 11월 20일을 맞아 태고종 전국신도회에서 최초로 창립한 보건공제회의 초대이사장직에 취임하여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냈던 일이다. 지금은 태고종 상조회와 태고종 신용협동조합으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고 크게 보람을 느끼며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를 드린다.

부처님 법 안에서 오래 살다보니 부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짐들을 지어주셨다. 태고종에서는 중앙종회의원직과 종립대학인 동방불교대학 교수직을, 범불교적으로는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의 공동대표 회장 그리고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에는 지도법사, 한국불교 재가회의에서는 이사직을 맡겨주셨다. 분수에 넘치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문서포교의 일환으로 월간 〈부처님의 말씀〉을 발행하고 있으며, 도서출판 시방문화원이라는 조그마한 출판사도 갖고 있다. 어렵지만 보람을 느낀다.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또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내가 태고종과 인연된 이래 태고종의 종조이시며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체계나 교육이념이 체계화되어있는 문헌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태고스님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태고보우국사의 불교교육론 연구'라는 논문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크게 보람을 느낀다.

지금까지 불교이야기로만 일관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원장으로 있는 한국 인성개발원에서는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는 카운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상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카운슬러는 없었다고 본다. 나는 불교적 성향을 가지고 연기적사고(緣起的思考)에 의하여 인과율(因果律)에 적용하는 상담과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나는 늘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처님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마음 속으로 굳게 다짐해 본다.

봉축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임원진

명예회장 월탄 스님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동성 스님
수석부회장 원성 스님 사무총장 지원 스님
부 회 장 장산 스님 총무부장 김광태 법사
일우 스님 섭외부장 이정 법사
지홍 스님 조직부장 도진 스님
삼지 스님 재무부장 종림 스님
감 사 정덕 스님 문화부장 상덕 스님
일면 스님 사무국장 선종 법사

특별분과위원회

장학포상분과위원회위원장 월탄 스님
종책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
언론통일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
포교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성열 스님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시현 스님
재가법사분과위원회위원장 송병욱 법사
동국대학중흥위원회위원장 원성 스님
부위원장 법장 스님
간 사 법안 스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신문로2가 1-38 내자원B/D 6층
전화 : (02)723-5264 / FAX:(02)736-6205

◐ 한문과 불교공부를 함께 ◑

예불문 · 반야심경 · 천수경
금강경 · 부모은중경 ·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 보현행원품

불교경전 속의 한자만 모은

佛教千字文

감 수 : 백 운
편저자 : 덕 진
쓰 기 : 박한숙

여덟 종류의 불교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 교재 역할과
사경의 의미까지 포함한
불자 필수 교본!!

쓰기(사경)편/ 3,000원
자전편(자전 · 용어풀이, 중요귀절 해석편)/ 2,500원

우리출판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 313-5047 · 5056 / FAX 393-9696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宴(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중국구화산 신라승 肉身佛

지장보살

地藏菩薩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 현지 촬영 완성!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이었습니다.
천이백년 동안 단 한번도 꺼지지 않은
김지장육신보전의 향불! 석가모니불로부터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삼생을 나투시는 무불시대의 메시아!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아십니까?

제1부 :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
제2부 : 꺼지지 않는 김지장 깃발

비디오 구입문의 : 02-233-2830

우편판매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외환은행 : 139-13-05983-7 김행수
우 체 국 : 011213-0068986 김행수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2〉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②

或者避席曰予之孤陋也
혹자피석왈여지고루야
幸子 發其蒙 願聞聖人之學
행자 발기몽 원문성인지학
中庸子曰 復坐 吾語汝
중용자왈 부좌 오어여
書不云乎 惟狂 克念作聖 惟聖 罔念作狂
서불운호 유광 극념작성 유성 망념작광
是故 聖人 造次顚沛 未嘗不念正道而學之也

시고 성인 조차전패 미상불념정도이학지야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르기를, 「나의 고루함이여(견문이 좁고 시대에 뒤짐),
다행히 (나의) 그 몽매함을 계발해주시니 성인의 가르치심을 듣기 원합니다」하였다
중용자(고산지원법사) 이르기를 「자리에 앉으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이하 그의 발언)
서경에서 이르지 않더냐. 오히려 미치광이라도 생각을 이기면(한생각 돌려 삼독심 여의면) 성인이 되고 성인일지라도 생각 바르지 못하면 미치광이가 된다 하지 않더냐.
그러므로 성인은 아차 한순간 발을 헛디뎌 물을 엎지를 때(신심을 잃음·주장자를 잃음)에도 일찌기 정도를 잊지 않아 배움이 없지않나니라.

夫子 大聖人也 拔乎其萃 出乎其類
부자 대성인야 발호기췌 출호기류
自生民以來 未有如夫子者
자생민이래 미유여부자자
入太廟 每事問則是 學於廟人也
입태묘 매사문즉시 학어묘인야
三人行 擇其善者而從之則是 學於僧子也
삼인행 택기선자이종지즉시 학어해행야
入周則問禮於老子則是 學於杜史耶
입주즉문예어노자즉시 학어주사야
豈仲尼至聖 不若廟人行人杜史耶
기중니지성 불약묘인행인주사야

공자는 큰 성인이라, 그 무리 가운데 빼어났으며 그 무리에서 특출하니
사람이 난 이래로 공부자 같은 이가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나라 주공의 묘(또는 종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었으니 이는 묘지기에게 배운 것이요
세사람이 길을 갈 때는 그중 착한 사람을 가려서 그를 좇았으니 이는 동행하는 이에게 배운 것이요.
주나라에 들어가서는 예법을 노자에게 물었으니 이는 주하사(중국벼슬이름·도서관 서기)에게 배운 것이라.
어찌 공자의 성인다움이 묘지기나 행인, 도서관 서기만 못하랴마는

蓋聖人 懼夫不念正道而學之於狂也矣

개성인 구부불념정도이학지어광야의
故 曰必有如丘之忠信焉 不如丘之好學也
고 왈필유여구지충신언 불여구지호학야
曰聖人 生而知之 何必學爲
왈성인 생이지지 하필학위
曰知而學 聖人也 學而知 常人也
왈지이학 성인야 학이지 상인야
雖聖人常人 莫有不由於學焉
수성인상인 막유불유어학언

대체로 성인은 바른 도를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미치광이 같이 될까 두려워 함이라
고로 이르기를 공자와 같은 충신은 꼭 있었으되 공자와 같이 배움을 좋아한 이는 없었노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이가) 이르기를, 「성인은 (닦지 않아도) 나서부터 안다하는데 어찌 반드시 배운다 합니까」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알고 배우는 이는 성인이고 배워서 아는 것은 보통사람인데
비록 성인이든 보통사람이든 배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경우는 없다」하였다.

배워서 알면 보통사람 알고도 배우면 성인

孔子曰君子不可不學 子路曰南山有竹
공자왈군자불가불학 자로왈남산유죽
不柔自直 斬而用之 達乎犀革
불유자직 참이용지 달호서혁
以此言之 何學之有
이차언지 하학지유
孔子曰 括而羽之 鏃而礪之
공자왈 괄이우지 촉이려지
其入之不亦深乎
기입지불역심호

공자 이르기를 「군자는 가히 배우지 않을 수 없다」하니 자로가 말하기를 「남산에 대나무가 있어
바로 잡지 않아도 절로 곧아 베어서 쓰면 무소의 가죽을 뚫는다 하였으니
이로써 말하건대 어찌 배울 것이 있습니까?」
공자 이르기를 「화살 끝에 깃을 달고 촉을 갈아 박으면 그 뚫고 들어감이 깊지 않겠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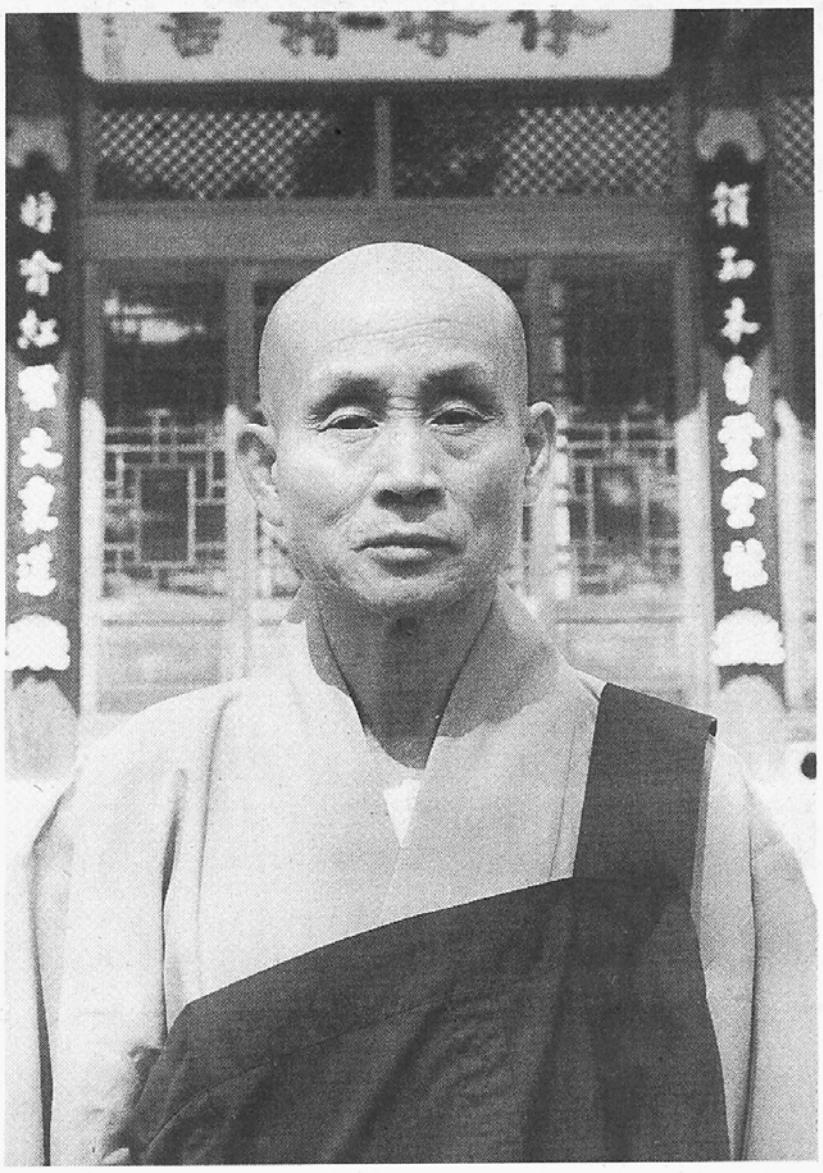
子路 再拜曰 敬受教矣
자로 재배왈 경수교의
噫聖人之學 無乃括羽鏃礪 使深入乎
애성인지학 무내괄우촉려 사심입호
豈生而知之者 兀然不學耶
기생이지지자 올연불학야

자로가 재배하면서 「공경히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하였다.
슬프도다. 성인의 배움이란 깃을 달고 촉을 갈아 깊이 뚫고 들어가게 함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어찌 나면서부터 안다고 잘난척 (우뚝한척) 배우지 않는 것인가

龍眼

★ 지상법석

"허무한 곳에 마음 두면



대정스님 〈범어사 선원장〉

약력
- 1931. 3. 25 대구生
- 1946년 출가
- 1959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해인사, 범어사 등 선원에서 수행정진
- 1989년이후 현재까지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수행정진

금정산정(金井山頂) 비암룡(飛岩龍)하고
해운심저(海雲深底) 생연화(生蓮花)로다.
금정산 산정에 바위용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해운대 바다밑 깊은 곳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이 곱게 곱게 피어 있더라.

우리의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가 허상입니다. 이 허상이 바로 허깨비입니다. 허깨비이기 때문에 거품같고 안개같고 구름같고 연기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일장춘몽입니다. 즉 거북이의 털, 토끼의 뿔입니다.

여기에는 두 말이 필요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현실을 벗어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산승이 하는 말 모두가

중생의 근본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원력과 지혜와 자비가 삼위일체 되어야

거짓입니다. 그러나 거짓 가운데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법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말과 뜻과 생각이 아닙니다.

도를 이룸으로 법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로써는 절대로 깨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는 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다, 선이다, 도다, 하는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뜻으로 헤아려서 알려 한다면 이것은 헤아리는 것이지 결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거나 일으키게 되면 생각을 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될지언정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도와 선과 법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삼위일체입니다. 이 도와 선과 법이 서로 상응하여 도를 이루고, 도를 이룸으로 해서 안목이 열리므로 확철대오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의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침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체만물을 보지만 제눈을 제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깨침이라는 것은 깨침 자체에 가서는 깨침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있을 때 밝음이 있는 것이지 일단 밝고 나면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철대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깨침도 없고 깨침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깨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 선, 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높이와 크기와 넓이와 그 모양이 비슷한 가설이 필요합니다.

이 가설은 본 건물을 짓기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완성되면 가설은 자연히 소멸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도와 선과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깨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부처님의 깨침입니다. 그래서 깨치면 바로 부처요, 깨치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곧 부처(是心卽佛)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현재 우리가 앉고, 눕고, 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즉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깨침이고 부처고 도고 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만약 내가 없으면 동시에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효림의 책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신간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짜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

지상법석

일평생 꿈속을 헤맵니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곧 우리의 청정심
자기자신 바로 알지 못할때 불행

마음밖에서 다른 무엇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평등하고 이것은 어떠한 장애와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 자체 그대로가 자재무애하고 상주불생(常住不生)하고 상주불멸(常住不滅)하는 것입니다. 영원불멸의 생명체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미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평등한데 마음을 모르면 그대로 불평등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되면 이로 인해서 모순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그대로 변질됨으로써 업에 끄달려 나고 죽는 등 우리의 근본과 아무 상관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기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생육도라 합니다.

중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원력과 지혜와 자비가 삼위일체가 되어야합니다.

지혜와 자비, 원력, 이 셋이 바로 팔만사천의 법문입니다. 팔만사천의 법문은 중생의 근기가 모두 달라서 근기에 맞게 말씀하다 보니 이처럼 방대한 논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파도로 인해서 천파만파가 생기는 것인데 이 천파만파라고 하는 것은 각기 모양은 다를지언정 그 내용인 짠맛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법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이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마음을 보아야지 마음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 중생이지요. 이렇게 되면 마음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또하나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마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근본사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이고 부처님의 진정한 법을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불자는 이런 점을 크게 뉘우치고 대오각성하여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에 비추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중생의 망념에 불과하며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확철대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확철대오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안목이 분명해야 되고 안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도를 성취해야 되며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선을 올바르게 해야만 됩니다.

선에도 올바른 선이 있고 사선이 있습니다. 중국 단나라 시대의 종밀이란 스님이 저술한 〈선원전집도서〉란 책에 의하면 참선에는 범부선,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상승선, 최상승선 등이 있습니다.

범부선은 단순히 중생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는 선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말이 선이지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승선은 4념처, 7각지, 5정심, 위빠사나 등 초기불교에서 행해진 수행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남방불교에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대승선은 반주삼매경을 비롯한 각종 대승경전에 나오는 선이나 관(觀)자가 경의 첫머리에 붙은 경전등에 나오는 선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최상승선이란 보리달마 스님께서 면벽수선하기 시작하여 조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조사에게 전하여 비롯되었다는 뜻에서 조사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청정여래선이라 부르기도 하므로 결국 최상승선과 청정여래선은 같은 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청정여래선이 가장 완전무결한 선입니다. 청정여래선은 모든 격식을 초월한 선지입니다.

참선은 본래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대중 앞에서 한송이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가섭만이 그 뜻을 바로 알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전심(以心傳心) 이요, 대선지, 공안이라 합니다.

공안이라는 것도 올바른 선이 되고 올바로 깨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안은 법과 도와 선의 중추기능입니다. 이 중추기능을 화두라 합니다.

화두는 단순하게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가는 법문입니다.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화두만 제대로 들면 확철대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두를 영원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화두는 활구이고 화두를 벗어나면 사구입니다. 화두를 벗어나서는 절대 견성할 수 없고 견성이 안되면 성불이 안되고 성불이 안되면 법도 마음도 자기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조사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근본 뜻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무명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산고행을 하신 도는 단순한 명상, 관법, 기도가 아닙니다. 우주와 인생의 참된 진리, 알지 못하는 의심을 풀기 위해 수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의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곧 허깨비이고 구름같고 안개같고 거품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업으로 인해 임시로 생긴 가성(假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된 것이고 마음은 의식, 망상과 번뇌로 얽힌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 참된 마음, 참 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전체가 거짓 덩어리입니다.

육조혜능대사께서는 화두에 1천7백공안이 있으며 그것은 '이뭐꼬'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만사천의 법문이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듯이 화두 역시 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뭐꼬'만 가지면 시방법계 모든중생이 성불하고도 남습니다

이 의심은 가장 수승하고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조사가 이로인해 견성했고 중생의 앞길을 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선은 일만성인(一萬聖人)의 근본이고자 귀의처이고 스승이며 모체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참된 진리 풀기위해 부처님께서 설산고행

참선은 화두를 들때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체와 용이 분명하게 되기에 절대평등의 경지입니다. 화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챙겨야 합니다.

참선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계속 정진하면 일부로 틀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의 꽃입니다. 화두의 꽃이 피면 당연히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과법칙의 참된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과 생각이 필요없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법은 이와같이 간단하고 단순하며 순수합니다.

불자로서 선을 행하지 않고 허무한 곳에 마음을 두고 희희낙낙한다면 바로 일장춘몽의 꿈 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오직 법이 충만할 뿐입니다. 법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도 없고 들음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자리에서 어떤말이 있거나 들음이 있다면 이 주장자가 통곡을 할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5

양 형 진

불구부정

지금까지 우리는 중론에서의 八不 중에 不生不滅, 不常不斷, 不一不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나 남은 不去不來를 다음 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不垢不淨)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불구부정이란 우리 오관의 감각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우리에게는 안이비설신의의 6근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감각이 나타나, 깨끗하고 더럽다든가 아름답고 추하다는 여러 감각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왜 불구부정이라 하였는가. 음식맛을 예로들어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배부른 상태라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대단한 고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그 음식에 몹시 체하기라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을 꺼려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우기 그 특정한 사람을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이 특정한 음식이 맛있다는 감각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혀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서도 또한 달라진다.

육근의 판단은 시간·상황따라 달라지는 것
무집착 상태서 보면 일체가 차별없는 경지

아름답다거나 깨끗하다는 감각이 앞에서 예로 든 혀의 감각보다 보편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오랜 옛날부터 특정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아주 독특한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우리는 썩은 음식을 냄새 맡기도 싫어한다. 이는 썩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몸이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터득하였고, 이 정보가 우리의 감각에 각인된 결과이다. 파리라는 곤충에게 이 썩은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될것이니 이 음식 자체가 꺼려해야 할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음식이 더럽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파리도 또한 인간과 같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끗하다거나 더럽다는 명칭은 인간이라는 특수한 존재가 그 대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준으로 이름지어 평가하는 것 뿐이니,이러한 감각은 인간존재에서 있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구속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을 벗어나 무애자재한 경지에서 살펴본다면 깨끗하다거나 더럽다는 것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된다. 박테리아의 예를 들어 다시 살펴보자.

우리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싫어하며 따라서 음식을 상하게 하는 박테리아와 같은 것을 싫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란 부패가 없는 세계이니 이는 고생대의 식물에서부터 암모나이트와 공룡은 물론이고 가까운 우리의 선조까지 그 모든 시체가 널려있는 참으로 참담한 세계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는 박테리아조차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박테리아 때문에 봄이면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푸른 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먼지의 예를 하나 더 살펴 보자.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먼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먼지가 공중에 있으므로 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가 내리게 된다. 따라서 푸른 풀이 돋아나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 더 없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먼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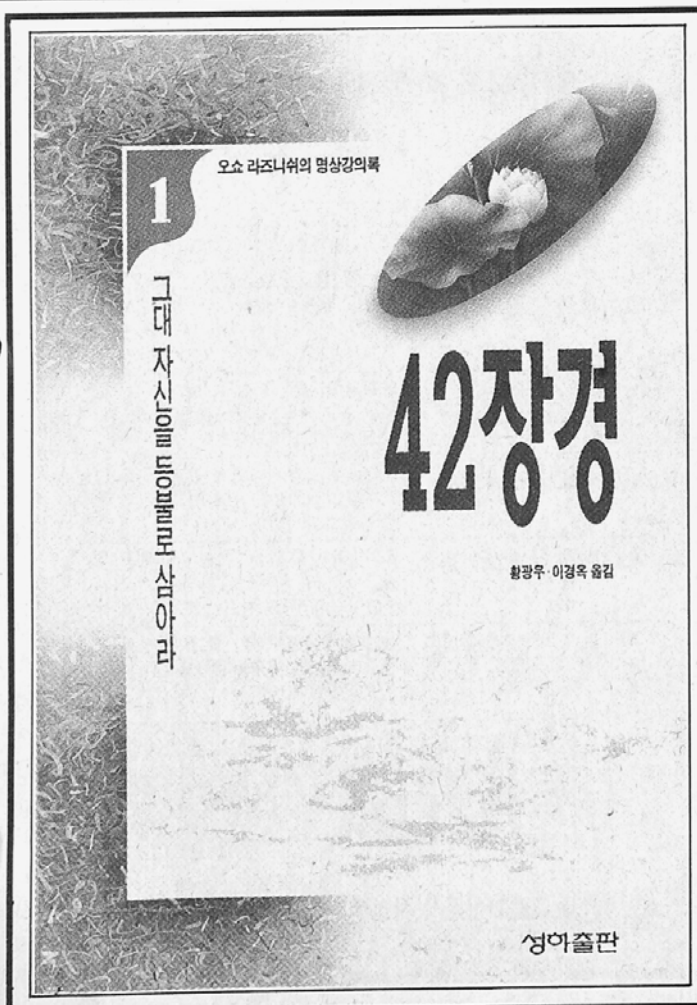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특수한 감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아름다움이나 깨끗함을 논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무명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무명의 구속에서 해탈하여 무심과 무집착의 경지에서 모든 것을 관조하며 포용한다면 깨끗하다고 가까이 하고 더럽다고 멀리할 것이 없으며, 아름답게 보인다고 존귀하게 대하고 더럽게 보인다고 비천하게 대할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일체에 걸림없이 자재한 관자재보살이 반야심경에서 전식득지(轉識得智)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는 만법평등의 가르침이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도서명 / 42장경 **1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저·역자 /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황광우/이경옥
■판 형 / 신국판/ 각권 452쪽 내외
■가 격 / 각권 7,500원
■발행일 / 1권 1995년 4월 20일
2권 1995년 5월 10일
■발행처 / 도서출판 성하

전화 778-6826~7, 팩스 778-6828

고은 불교 대하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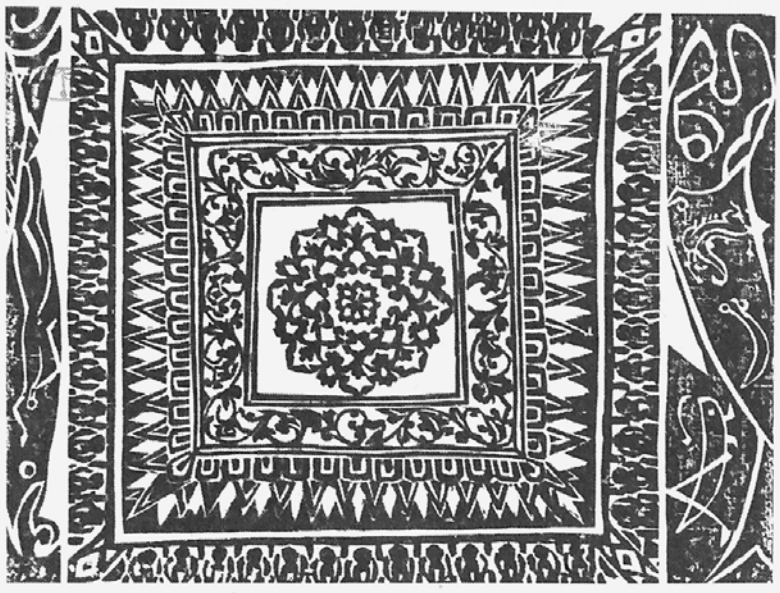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수미산

〈 28 〉

전생(轉生)

무전의 염습(殮襲)도 하지 않은 그대로의 시신은 일단 물 속으로 가라 앉았다가 어떤 파도자락의 밀어올리는 표면장력(表面張力)에 의해서 불쑥 떠 올랐다. 일체의 상례(喪禮)따위를 없앤 까닭인즉 태어남이나 죽음이 하나도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수장을 지내는데는 시신을 묶거나 옷을 갈아 입히거나 하는 것은 숫제 군더더기의 일이다. 수장의 목적이 그 시신으로 하여금 고기들에게 바치는 구차스러운 공양일 바에는 그나마 알몸인채가 가장 좋은 것이다.

어쨌거나 무전이 입고 있던 옷은 파도에 의해서 흘라당 벗겨져 알몸뚱이일 뿐이었다.

그 시신이 떠올라서 한동안 파도더미를 타고 있는데 곧 그 일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물 속에는 이미 달려와 몇 바퀴 돌면서 시신에게 덤벼든 큰 고기 한두마리가 있었고 그 놈들의 동작에 영향을 받은 작은 고기들도 큰 고기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슬쩍슬쩍 시신 가까이 다가들었다가 물러났다가 하고 있었다.

무전의 시신은 육체의 해방이라도 실컷 누리고 있는 것처럼 두 팔과 두 다리가 제멋대로 뻗어나서 너훌거리고 있었다. 굳어질대로 굳어진 뼈도 이런 사나운 파도더미한테는 영락없는 수동체로서의 꺾여진 연골(軟骨)로 바뀌었는지 모른다. 이틀테면 무전은 그가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다. 파도에 실린 시신의 그 고정될 수 없는 춤이 바로 그랬다.

그러기를 한 시간쯤 지난 뒤에 시신은 갑자기 물속으로 내려가고 없었다. 큰 고기 두어마리가 마침내 시신의 일부를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고기들은 대상에 늘어붙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뜯어먹을 만큼 먹고는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그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시신은 물속에서도 거꾸로 되거나 옆으로 되거나 하며 물속의 자연에 의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벌써 입술 부근의 부드러운 부분이 고기의 먹이로 뜯겨졌고 국부도 없어져 버렸다. 배꼽부근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큰 고기들이 한 바퀴 넓게 원주(圓周)를 그리는 동안 작은 고기들이 그 원주 안에 들어와 대상에 다가들었다가 단단히 혼나서 달아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무전의 시신이 물속의 조류(潮流)에 의해서나 고기에 의해서나 거덜나는 동안 그 생명이 정지된 육신을 떠난 무전의 아뢰야식(阿賴耶識)은 중유(中有-中陰)에 들어갔다.

이미 죽었으니 그가 살았던 곳이 전생이 되었다. 그 전생의 죽음이 시작된 순간(死有)으로부터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찰나(生有)까지의 중간시기의 존재인 영식신(靈識身)이므로 이미 그것은 피와 살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오로지 우주 안의 향(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식향(食香)이다.

또한 뜻으로 생기고 뜻으로 이루어지는 화생(化生)의 몸 즉 의생신(意生身)이기도 하다.

바로 이 중유의 몸이 그 행(行)에 의해서 생(生)을 받을 곳이 정해지노라면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는 정력(定力), 통력(通力), 차식력(借識力), 대원력(大願力), 법위력(法威力)등의 힘으로도 그 정해진 바를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극히 착한 사람이나 극히 악한 사람은 죽어서 다음 생을 곧장 받기 때문에 중유에 들어있을 겨를이 없다. 무전은 극선도 극안도 아니었으므로 중유의 넋그늘이 되어야 하였다.

만약 그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비록 먼 곳에서라도 멀고 가까운 차별없이 태어날 부모가 서로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들어갈 뜻을 일으킨다.

남자가 되려면 어머니에게 남자가 될 욕심을 내게 하고 여자가 되려면 아버지에게 여자가 될 욕심을 일으킨다.

이런 인연이 뒤바뀌어 둘 다 다른 마음을 일으킬 때 제 몸이 사랑하는 것과 합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부정(不淨)을 쏟아지게 하여 태(胎)에 들때는 비로소 중음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무전의 영식(靈識)은 바야흐로 그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씨앗을 섭지(攝持)하고 있어서 중유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그 세상의 실재(實在)가 될 수 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아뢰야식이 망식(妄識)이라고 주장하는 유식사상(唯識思想)이 있고 지론종(地論宗)에서는 진식(眞識)으로 주장하며 그 한복판에 화엄종의 기신론(起信論)이 진과 망을 화합하는 식(識)으로 종합하기도 한다.

이 중유의 시간이 무전의 전생, 즉 무욕도의 시간으로는 49일동안이었다.

그가 무욕도에서 의식을 잃어갈 때, 그의 의식이 그의 몸에서 점점 떨어져 나와 멀어질 때 그의 의식 이외의 새로운 아뢰야식은 그의 몸에 모여드는 동료들의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저쪽에 서 있는 아름다운 합두의 모습도 매우 초현실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는 중 그의 아뢰야식이 그의 동료들에게 에워싸인 그 자신의 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 합두가 서 있는 곳을 휘익 돌아서 다시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무욕도의 생은 끝났다.

그리하여 중유의 영식신으로 떠돌다가 향내로 배를 불리고 뜻으로 집을 삼다가 새로운 세상의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태생(胎生)이 아니라 난생(卵生)이었다. 한 마리의 작은 벌레가 되는 절차였다.

수행자가 죽어 벌레가 되는 일은 일단 적지 않은 좌천(左遷)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자면 그야말로 벌레의 세계에 태어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함께 발전된 삶을 지향하려는 어떤 커다란 바다와도 같은 뜻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무전은 다시 태어났다. 한 알의 작은 알을 깨고 나온 수육(水陸) 동서(同棲)의 벌레인데 그것은 물위에 뜰 수도 있고 헤엄칠 수도 있고 육지의 아무데서나도 살 수도 있다.

그의 무욕도 전생에서는 그 종류가 없는 벌레인데 굳이 이름하건대 아리다라(阿唎多羅)벌레라 하였다.

아리다라 벌레로서의 무전은 그가 살았던 전생의 섬부주(贍部洲)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 우화주(牛貨洲)의 바다 위에 떠 있었다.



> 한 가엾은 중생이 어둠의 세상에 가 있다면
> 그 중생을 제도하러 그 어둠으로 갈 수 있겠소

그곳의 파도더미에서 그의 전생의 시신이 그랬던 것처럼 한 마리 벌레로서 고기떼들을 잘 피해가며 끝없이 헤엄쳐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섬부주의 남쪽에서 금빛으로 물든 서쪽 우화주 일대의 장엄하기 짝이 없는 광경은 그가 아무리 헤엄쳐가도 언제나 그 까마득한 거리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라리 한 마리의 헤엄치는 색다른 종류의 벌레인 무전에게는 수미산의 세계에 바탕이 되고 있는 일곱개의 높은 산맥들은 보이지도 않고 있었다. 그 산맥의 앞쪽이 안개와 같은 어떤 우주의 성운(星雲)의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 무전은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태생이 아니라
> 난생, 한마리 작은벌레가 된 것이었다.
> 수행자로서는 적지않은 좌천이었지만…

그래서인지 무전은 직경 1백20여만 유순(由旬-1유순은 7킬로미터)의 엄청난 길이를 가진 금륜(金輪) 위의 바다 한 곳에서 끝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크다는 것은 무엇인가. 넓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절망인 것이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면 이 세계의 그 무엇으로 절망을 삼는단 말인가.

과연 세계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큰 것인 줄이야.

무전은 그의 수많은 전생의 역정을 통해서 절망했던 과거는 지금 다 그의 기억 밖으로 영영 떠나버렸지만 그가 우주의 진리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때는 바로 그런 과거의 크기에 담겨있는 그 자신의 오랜 본생담(本生譚)도 낱낱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아"

라고 무전은 아리다라 벌레답지도 않은 한숨의 한 도막을 물 위에 아주 작은 입을 벌려 토해냈다. 그런 다음 바다의 짠 물을 아주 적은 양만 삼켰다.

그때 그의 앞에 아주 커다란 고기가 나타났다. 그 고기가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는 그 고기의 아가리에 다른 고기들이나 벌레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 큰 고기의 아가리 속은 당연히 캄캄하였다. 사나운 잇빨 틈에 끼어있다가 고기들이 아작아작 씹혀 죽은 살점들과 함께 내장으로 넘어갔다. 그 고기 속의 길고 긴 내장의 한군데에서 그는 그와 똑같은 다른 벌레들과 함께 어떤 점액질의 분비물에 사정없이 녹아버렸다.

"앗!"

하는 죽음 직전의 비명도 필요없는 죽음이었다.

그리하여 무전은 아리다라 벌레로부터 다시 한번 큰 고기 속의 기생충으로 태어나서 그 어둠 속을 그의 당연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아니 그곳은 인간이 그의 어머니 태안에서 자라고 있을 때의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비슷한 맹목적인 행복으로 차 있었다.

이 고기 속의 내장이야말로 무전에게는 어느덧 고향이 되었다. 다른 기생충들과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갈등이란 어디까지나 그 내장 안의 세계에서 살기 위한 상호간의 일시적인 경쟁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섬부주 인간계의 무욕도에서는 오직 우녀 밖에 없었다.

여기는 무욕도이다. 우녀는 합두와 함께 새벽 축시에 깨어났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무전이 큰 고기 안에 늘어붙어있는 새끼손가락만한 기생충으로 변신(變身)해 있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

"어머나! 무전스님이 한잦 벌레로 살고 있다니!"

"?"

합두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메무새를 추스리고 나서 우녀의 놀라는 말에 의문을 일으켰다.

"왜 그러십니까?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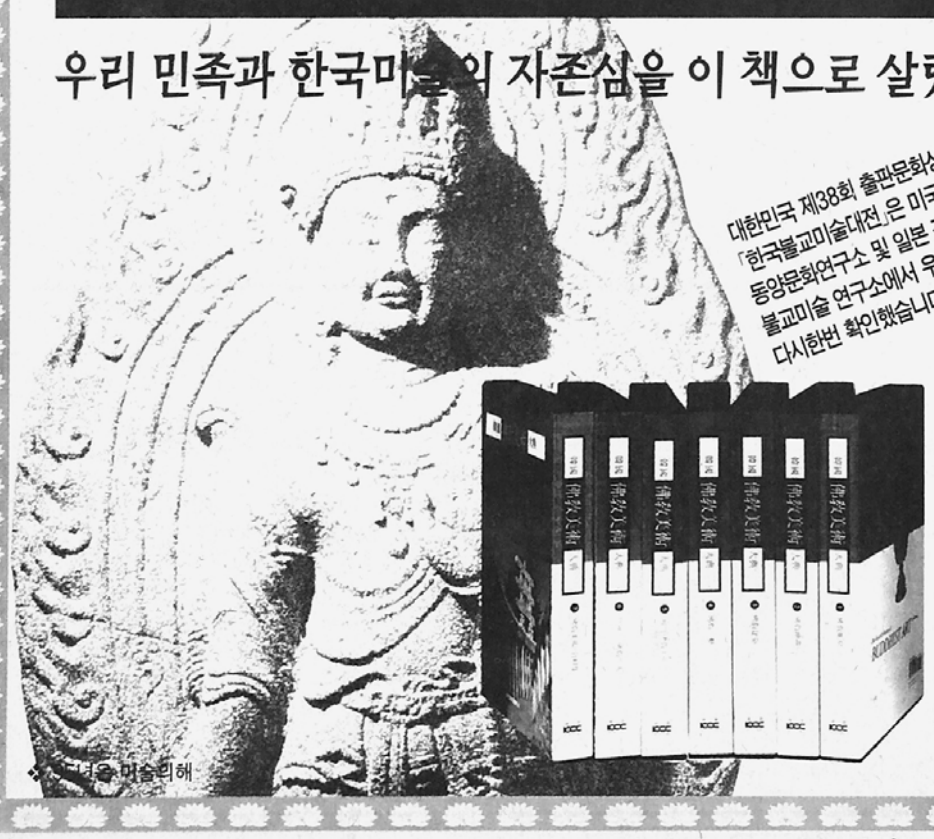
"응… 멀리… 먼 세상까지 보이는 일은 공연한 일이기도 하지… 자아 새벽 예불때가 되었지요? 벌써."

"네 스님."

"합두스님! 합두스님은 만약 한 가엾은 중생이 어둠의 세상에 가 있다면 그 중생을 제도하러 그 어둠으로 갈 수 있겠소?"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낱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5월 25일은 '차의 날'

차 향기 음미 전통문화·불심 가꾸자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망하고, 차(茶) 마시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흥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이다.

오는 25일은 제15회 '차의 날'

신라 김대렴 공이 당나라 사신으로 임무수행시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 일대에 심으면서 시작된 우리 차 역사는 올해로 1천1백67년이 된다. 매년 5월25일이 '차의 날'로 제정된 것은 민족의 차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한국 차문화를 창조, 보급한다는 뜻에서 햇차가 나오는 시기에 맞춘 것.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차의 날을 맞아 본사를 비롯 〈관련사고 3면〉 전국 차 동우회 및 차 관련 단체들은 차밭을 찾거나 차문화 큰잔치를 마련, 다채롭게 펼친다.

▲(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원흥)는 지난 21일 광주 금호문화회관에서 한국차문화협회 호남 사범회 주관으로 '제6회 전국 차인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길놀이에 이어 '민족문화의 다도'에 대한 원홍 이사장의 차문화 강의와 국악 한마당, 행다(차우리기 및 예절) 시연, 녹차무료시음, 차만들기등으로 꾀쳐져 차문화와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뿌리의식을 새롭게 조명했다.

특히 차음식의 상품개발과 대중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차음식 경연대회에서는 차를 이용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출품돼, 차음식 문화의 새장을 열었다. (02)701-0475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는 오는 25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제15회 차의 날 기념, 차의 날 큰잔치'를 마련한다.

차문화에 따르는 전통예절을 고찰, 혼탁해져 가는 현대생활에 있어서의 예절과 질서의식 함양과 차문화의 보급에 목적을 둔 이날 행사는 올해의 명차 선정과 함께 참가한 각 차회 회원들의 동시 행다발표 및 다식만들기와 시음·시식도 이어진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5일 맞이한 성년의 날을 기념 '성년다례의식'을 펼칠 예정이어서 이채롭다. (02)734-5866

▲진주 차인회(회장 류범형)는 25일 '김대렴 공 차 시배 제1167주년 추모 헌다례 개최'를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마련한다.

김대렴 공의 업적을 기리는 이날 행사는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 차인회가 차의 날을 기해 매년 마련하는 행사로 진주 차인회 회원가족, 차 동우인, 차 재배 동우인등이 참여한다.

한편, 희망자에 한해 하동 제다공장 및 조계산 선암사 야생 차단지를 견학하고, 낙안민속마을에서 행다를 시연한다. (0591)42-5700

▲(사)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감승희)은 오는 27일 오후2시부터 덕수궁경내에서 '차문화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 차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2, 3부 학술 강연 및 국악한마당, 차떡과 함께하는 차잔치로 마련된다. (02)732-1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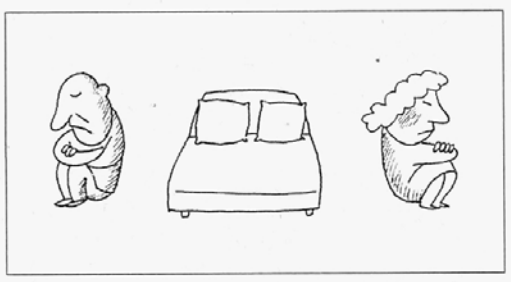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한국 차인연합회 회원들이 창경궁 내에서 행다시연을 하고 있다.

다례·차음식 만들기·차밭 기행등 행사 '풍성'





이른후 건강칼럼 <23>

정신치료

자기 주장보다 이해심 갖고 마음 비우면 완치

결혼한지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부부가 찾아와 무엇이 원인인지를 명확하게 말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해 내기 어려운 위기에 부딪쳤다는 하소연을 하면서 정신치료를 받으러 왔다.

"어떤 문제가 두분의 결혼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부부가 대답한 대답의 내용은 대개가 사소한 것들이며 또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이 많았다. 사소하기로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인 경우가 많았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한쪽에선 기억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한쪽은 원한에 가까운 감정을 지니지만 다른 한쪽에선 같은 내용의 사건을 이미 잊었거나 기억을 한데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때가 많다.

"그때 그일은 눈을 감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쪽은 그저 담담할 분이다. "글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데도 그걸 가지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무슨 일이고 금방 풀어지지는 않는다. 10년 세월을 함께 살면서 쌓여진 곡절들이 어떻게 몇마디 말들을 주고 받았다고 풀어질수가 있겠는가.

부부간에 치료자라는 중재자를 가운데 두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보다 진실하게 표현하면서 직면하고 그 사건들의 사정을 공감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중재자가 없다면 그들 부부는 같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경직되어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 보다는 오히려 자기 말의 합리화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니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이 내가 설 수 있다면 이 환자들은 적어도 함께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그건 전적으로 나의 화 때문이군요. 나는 거절을 받으면 무조건 화부터 냅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이…"

치료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를 대할 땐 치료를 끝마쳐도 된다. 그 이유는 환자가 치료적인 깨우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깨우침은 마음을 비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다.

현대불교 '茶 문화' 대잔치 (24~28일 녹수청산)

그윽한 차 향기로 맑은 佛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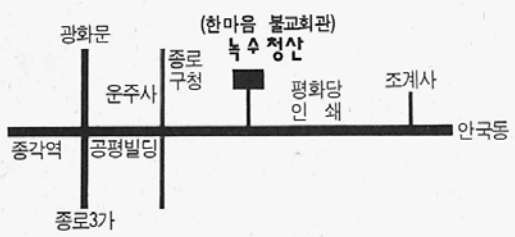
5월 25일 차의 날을 맞아 현대불교가 다채로운 차문화 대잔치를 마련합니다.
그윽한 차향기로 건강과 맑은 불심을 가꾸는 이 잔치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시음·차밭 기행

■ **차의 날 기념 강좌 (1)**
- 주제:한국 불교와 차문화
- 강사:선혜 스님(전통불교문화연구원장)
- 일시:24일 오후 6시 30분
- 장소: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 **차의 날 기념 강좌 (2)**
- 주제:차 예절
- 강사:감승희(차생활교육원장)
- 일시:26일 오후 6시 30분
- 장소:녹수청산

■ **다구 전시판매 및 시음회**
- 일시:24일~26일(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녹수청산
- 유명 다구제작인의 다구가 차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가로 보급됩니다.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737-8881, 722-4162)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 우리문화 체험여행

——— 그 첫번째, 지리산 차밭 기행 ———

현대불교신문은 본지 구독자와 불자 그리고 우리차 애호가들을 위하여 차밭 기행을 실시합니다. 차의 주산지 중 하나인 지리산으로 떠나는 이번 여행에서는 '햇차'를 즐기면서 찻잎 따기, 찻잎 덖기를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녹향 그윽한 차밭에서 대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차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1995년 5월 27일(토) ~ 5월 28일(일)
■ 장 소 : 지리산 차밭(경남 하동, '지리산 차천지')
■ 출 발 : 1995년 5월 27일(토), 오후 10시 현대불교신문사(조계사 부근) 앞
■ 주요행사 : 쌍계사 참배, 다례 시범, 작설차 만들기 시범, 작설차 채취 실습, 작설차 만들기 실습
* 작설차 채취, 만들기 대회도 함께 합니다.
* 현지 차밭은 토지의 무대(평사리)인 하동군 악양면이므로 소설 '토지'의 현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참가비 : 40,000원(현대불교 구독자는 35,000원)
■ 참가방법 : 전화 신청 후 아래 온라인으로 송금
023-25-0007-617(국민은행)
참가자 전원에게 현대불교신문 1개월 구독권과 다도 안내서, 햇차(100g)을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737-8881)

"현대과학 성과 중도적 평가 마땅

결정론·비결정론 이분법 정당치 않다"

최종덕 박사의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를 읽고 – 고려대 양형진 교수

최근에 최종덕 박사가 쓴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현대 자연철학의 이해〉를 읽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의 5장과 6장에서 다룬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나 진화론의 문제를 재미있게 읽었다. 그러나 필자는 7장에서의 양자역학 논의나 10장에서의 신과학 운동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세부적인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양자역학이 왜 비결정론적이며, 우리가 고전역학이 아닌 양자역학에 주목하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양자역학이 비결정론적이라는 점은 거의 모든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양책에서는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논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흔히 소개한다.

그러나 이 말은 양자 동력학이 확률론적이라는 것을 말할 뿐, 양자역학의 기본적 구조를 올바로 드러내지는 못한다. 또한 양자역학에서의 측정과 관련하여 스턴 게라크(Stern-Gerach) 실험등을 본다면 측정에 따른 비인과적 전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자론을 통해서 직접 인과율을 부정하는 추론은 타당할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또한 숨겨진 변수 이론에 의하여 초기의 보음(Bohm)이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양자역학에서의 모든 확률 언명은 궁극적으로 인과율로 환원된다고 보는 것 같다. 숨겨진 변수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자역학에서 확률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양자역학의 기술방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양자역학 이상의 이론을 구성하여 사물을 보다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이러한 확률론적인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사실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질문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 대한 상대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던질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어느 이론이 맞고 어느 이론이 틀린 것이냐를 밝혀내기

양자 역학·상대론 시야 확대…신과학운동으로 발전

숨겨진 변수 이론 자체가 기존의 양자역학 이론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는 하여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하였었지만, 1982년에 아스페(Aspect)의 실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따라서 숨겨진 변수이론에 의하여 양자역학을 결정론적인 이론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양자역학이 나온 이후 세계는 비결정론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일상의 세계는 여전히 결정론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세계는 결정론적인가 아니면 비결정론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보다는, 이론의 적용영역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이론이 보다 포괄적이며 어느 이론이 보다 기본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체의 운동을 아주 훌륭하게 설명한 뉴턴 역학을 양자론이나 상대론이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양자론이나 상대론이 기술하는 대상이 어떤 특정한 조건(물체의 크기가 크다든가 혹은 물체의 속도가 느리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뉴턴역학의 기술로도 충분할 수 있다. 다만 뉴턴 역학에서는 보지 못했던 위의 조건에서의 영역까지를 양자역학이나 상대론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역학이나 상대론에 의하여 자연을 보는 우리의 세계는 보편적으로 비결정론적이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 결정론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이해가 그대로 우리의 세계관이 될 수는 없지만 사물에 대한 이해를 떠나서 우리가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을 不一不二라는 중도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관련짓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과학의 성과를 우리의 세계관과 연관시키려는 작업, 소위 신과학 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시야가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같이 보다 포괄적인 시야로 자연을 본다면 자연은 비결정론적인 것이다. 다만 특수한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결정론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이러한 특수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전역학의 결정론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시세계는 비결정론적이고 거시세계는 결정론적이라는 등에서와 같이 세계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마저 정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세계는 양자역학의 세계와 고전역학의 세계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영역을 달리하는 두 가지 진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한암 일발록' 출간

문도회, '승가5칙' 등 발굴자료 실어



한암스님의 선사상과 후학들에 대한 자애로운 모습을 접할 수 있는 〈한암일발록(漢巖一鉢錄)〉이 한암문도회(운영위원장 현수)에 의해 발행됐다.

〈한암일발록〉은 지난 90년 통도사 극락암 명정스님이 펴낸〈한암집〉에 실린 글과 그후 새로 발굴한 '승가5칙' '선원규례' '참선곡' '선문답 21조' '직절법문' 등을 수록해 한국불교 선맥의 전통확립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어 게송 서간문 행장 별록 부록등 6장으로 구성했다.

'승가5칙'은 승려의 다섯가지 본분사를 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이라고 제시한 교시적 성격의 법어로 제2의 백장청규라 할 수 있다. '선원규례'는 선방에서 결제중 지켜야 할 규정 9칙을 담고 있다.

'선문답 21조'에는 선의 본질과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했으며, 간화(看話)와 반조(返照)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꼼꼼한 설명과 역대조사의 예를 들어 극명한 해답을 제시했다.

또 한암스님이 묵담스님에게 한산시 24수를 들어 직절법문으로 보낸 친필의 필사본을 실어 스님의 체취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급변하는 출판환경 대응을"

'멀티미디어시대 저작권 보호' 국제세미나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보호' 국제세미나가 '95 서울국제도서전의 특별행사로 지난 18일 20개국 1천5백여 출판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상조교수(서울대)는 멀티미디어를 문자정보 음성정보 영상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저작물이라고 파악하고, 새로운 출판환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출판협 카틀레느 카르 저작권국장은 "오늘날의 출판은 전통적 서적제작 기술과 완전히 새로운 매체에 책의 내용을 이식하는 기술 사이의 기로에 서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독자들의 높아지는 욕구의 분석과 △전자포맷에 적합한 책의 선택이 멀티미디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상조) △전자출판 기술과 그 저작권의 보호(간지 매다·일본전자출협회장) △전자매체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의무 및 양도(허버트틸리·프랑스 출협고문) △저작권,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토마스 디레이어·독일 저작권법률고문)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계획과 멀티미디어 저작권(이성해·정보통신부) △멀티미디어:지적재산법, 새로운 기술과 사회화의 조화 가능성(카틀레느 카르·미국 출판협 저작권 국장)

명사추천 불서 100선

헤르만 헷세의 '싯다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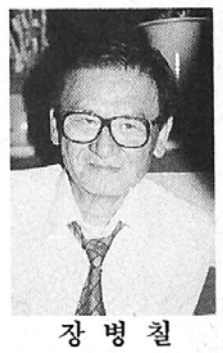
젊은날의 헷세는 제1차 세계대전 전인 1911년에 말레이지아, 수마트라, 스리랑카 등 동양을 여행했다. 그로부터 11년이 흐른 1922년에 그는 '인도의 시'라는 부제가 붙은 〈싯다르타〉를 썼다. 제1차 세계대전후의 유럽사회는 일종의 허무감속에서 방황하던 때였다.

헷세의 소설 싯다르타는 성도한 불타를 다루지 않고 괴로와하고 방황하며 참다운 삶과 사랑을 갈구하는 젊은 싯타르타의 모습을 그렸다는데 뜻이 있다. 물론 성도한 불타의 절대의 경지가 오묘하고 심원하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고 오히려 삶에 대한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진실과 사랑을 갈구하며 길었던 싯다르타의 깊고도 험한 여정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더욱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하게 한다.

불교라는 종교가 갖는 여러 뜻과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싯다르타의 걸음걸이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주기에 충분하다. 10대의 중학생 시절에 읽었던 소설 싯다르타는 어린시절의

소설 싯다르타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다. 어떤 사물이든 상황이든간에 절대적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많은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이 불교가 갖는 하나의 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봄직하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자네를 막고 있네. 해탈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혹은 윤회라든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한마디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 고빈다여, 열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네. 존재하는 것



장 병 칠
(前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진실·사랑 구하는 부처님 그려

젊은이들에게 삶의 목표 제시

은 다만 열반이란 말뿐일세."

싯다르타는 이어서 고빈다 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사상과 말을 별로 구별하지 않네. 사상이라는 것을별로 중요시 하지 않고 사물을 더 중요시한다네"라고 말한다.

무릇 사상이나 신앙에는 자칫하면 도그마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싯다르타의 위와 같은 말은 불타가 갈구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나는 불교를 잘 모른다. 그러나 불교가 내포하고 갈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막연하게나마 알게 해주고 삶에 대한 한없이 맑고 넓은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소설 싯다르타는 소중한 책가운데의 하나이다.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벼운 우수와 경멸을 잠재워 주었던 것이 지금도 회상된다.

그뒤 6·25때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통과 공포와 그리고 증오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인 20대 초반의 나에게 싯다르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굽어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친근한 벗이었고 지침이 되어 주었다.

"세계를 통찰하고 세계를 해명하면서 세계를 경멸하는 것이 위대한 예술가들의 일이지.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는 세계를 사랑할수 있다는 것, 세계를 경멸하지 않는다는 것, 세계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세계와 나 그리고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과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야."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삶에서 깨어나기	틱낫한	장경각
2	청소년불교성전	편찬회	불교진흥원
3	우물을 떠난 개구리	법륜	정토
4	부처님 말씀	성열	법등
5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6	법구경	거해	고려원
7	차크라바르틴	성낙주	살림
8	마음의 향기	석성우	토방
9	인도불적 답사기	호진	불교시대사
10	선 100문 100답	진제	파란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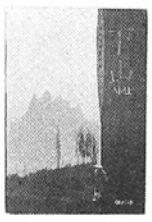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새로 나온 책









▲하안 거짓말(무구 지음)=경주 지장암에서 정진중인 저자의 수필집. 수행하며 겪은 세상 이야기와 스님의 지나온 발자취, 삶의 방편들이 대화를 하듯이 잔잔하게 전해준다. 〈부다가야, 6천5백원〉

▲배꼽밑 주인공 찾아라(박희선 지음)=피라미드식 좌법(座法)의 과학적 이론과 실천법을 소개했다. 피라미드식 좌법은 저자가 개발한 건강참선법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 〈심령과학, 7천원〉

▲생명의 저울(현능 지음)=지난 89년 서울 상계동에 사천왕사를 창립해 대중포교활동을 펼쳐온 저자의 불교입문서. 각종 법회와 사보(화엄세계)에서 했던 법문을 묶어 화엄경 야합경 법구경 강설 등으로 구성했다. 〈문학동네, 6천5백원〉

▲몸둘곳은 있어도 마음 머물곳은 없어라(삼중 지음)=원효스님으로부터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의 정신적 표상이었던 선승들의 게송을 한데 모았다. 열반송 오도송 이별송 자연송으로 나눠 모두 123편의 게송을 소개하고, 각 게송마다 삼중스님이 해설을 덧붙였다. 〈태일, 6천원〉

▲하산(下山, 홍주 지음)=1969년 민통선 철책에서 지뢰를 밟아 세상을 떠난 홍주스님의 구도소설. 법주와 석사 두 스님을 통해 불교인의 사명과 올바른 깨달음의 길은 중생과 함께 하는 삶임을 제시한다. 30여년전 2백부 한정판으로 발행된 것을 재출간. 〈불지사, 5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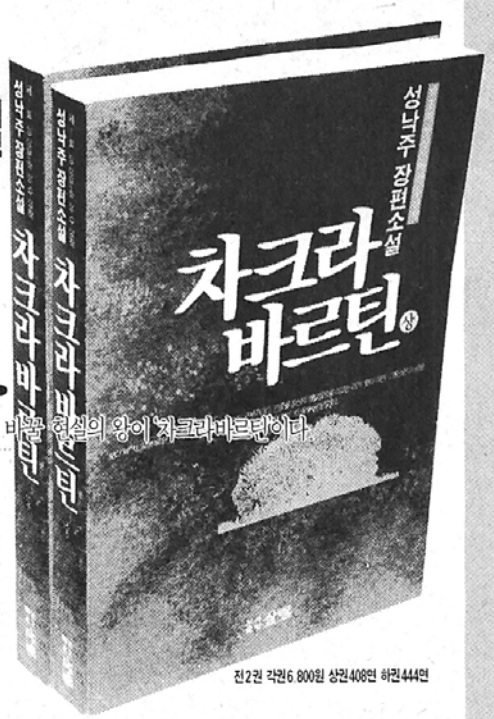
계간「상상」주관 제1회 상상문학상 수상작

성낙주 장편소설

"붓다 시대를 다룬 세계 최초의 본격문학"

차크라바르틴

'붓다'와 '차크라바르틴'은 다 같이 민중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민중을 정신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가 '붓다'라면, 고통스런 이 땅을 낙원으로 바꿀 현실의 왕이 '차크라바르틴'이다.



전2권 각권6,800원 상권408면 하권44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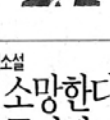
'차크라바르틴'은 불교라는 종교가 막 태동하고 발생하는 시간적·공간적 지점으로 내려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석가족의 성자 고타마 싯다르타와 석가족을 멸망시켜 천축을 통일하려는 비유리 왕의 갈등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면서, 붓다(覺者)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라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는 진지한 주제와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오늘날, 신화와 설화에 대한 우리 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은 세기말의 삶이 파편화·부분화 되었다는 반작용인 동시에 삶의 정체성과 전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적 새물결임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설화가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차크라바르틴'은 분명 눈여겨 보아야 할 뛰어난 소설임에 분명하다.

「상상문학상」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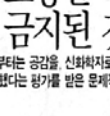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나는 이 작품을 서른 번이나 새로 썼다 참고한 서적만도 수백 권이 넘을 것이다 이 소설 속에는 지난 내 생의 땀과 눈물이 녹아들어 있다

성낙주(수상작가)



지크라바르틴'은 나름 이야기의 숲속에 파뜨린 소설이다 이토록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을 근래에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면 재미기도 벌떡 일어나는 버릇의 나에게 이 소설이야말로 가장 반가운 신물이었다 양귀자(소설가)



지크라바르틴'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다 우선 우리 정신의 근원인 동양정신을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야기 서사의 힘은 독자를 정신없이 빠져들게 한다

이인화(소설가)

이문열 사색집
사색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만나게 될 운명과도 같은 책!
값 5,000원

임철우 장편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
질펀한 웃음과 투명한 눈물 꿈과 안타까움이 전편에 걸쳐 스며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값 5,000원

양귀자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00만 독자로부터는 공감을 신화학자로부터는 여신상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문제작 텍스트!
값 5,500원

기형도 유고집
짧은 여행의 기록
팹게 살다간 시인의 일기, 편지, 소설, 기행문 등 내밀한 영혼의 불꽃나무!
값 5,000원

유서로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극소수의 독자들이 읽었지만 그 독자들로부터는 극찬을 받은 보석같은 소설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85-9 인왕빌딩 304 305호
전화 379-4925 4926 영업부 394-3451 3452 편집부
팩스 379-4724

100년 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옮김
최보 33면 미색지 80×606면 값 12,000원
그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이 나와 집어게됐다 소설처럼 읽히는 재미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 우리의 생활상을 꼼꼼하게 적어나가는 작가의 관찰력에 일단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박완서(소설가)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놀라운 것이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장례풍습과 여성의 생활 양반의 기생 무당의 굿과 귀신들의 계보 등 민중생활에 관한 생생하고 세심한 관찰이다 장정일(작가)
꿈과 100년 전의 시간 등을 지금 생활등에 어떠면 우리는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번역을 하는 3년에 동안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은 나의 무지를 통절하게 깨우쳐준 스승이었다 이인화(영원한 제국 의 작가)

신이현 장편소설
숨어있기 좋은 방
삶의 깊이, 나이체적 질문으로 가득 찬 소설!
주인공 은아금, 이 귀여운 처녀의 내면에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갖가지 거짓과 위선을 통찰한 끝에 도달한 나이체적 진실이 존재한다.
숨어있기 좋은 방 은 아웃사이더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90년대 소설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일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여인의 독백이 담긴 소설! 동아일보
이 소설은 우리를 은밀하면서도 두려운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나는 우리 소설에서 보기 드문 반윤리적 소설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에 젖는다 진형준(문학평론가)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신작 찬불가 "여름잔치"

이찬우씨 내달 3일·불교음악 연구회 7월1일 발표 무대

불음가곡·대금 변주곡·신디사이저 반주곡등 '눈길'

새 불교음악이 무더기로 발표된다.

6월3일 오후 7시30분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찬우 작곡발표회'와 7월1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의 신곡발표회는 불교음악의 영역을 넓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두 공연은 신곡발표 외에도 기존의 불교음악을 변형시킨 작품과 의식찬불가의 차원을 넘어선 가곡풍의 작품을 내놓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63년 '청법가'를 발표한 이래 계속 찬불가를 작곡해 오다가 처음으로 발표회를 갖는 이찬우씨는 6월3일의 공연에서 신작가곡 '청산은 나를보고'를 선보인다.

이밖에도 찬불 가곡 17곡을 독창과 중창, 합창으로 발표한다. 이날 무대는 주로 솔로곡으로 꾸며지지만 '일천강에 비친 달'과 '어느 산사의 사계절'은 부산 천불사 우담발화 합창단과 불광사 바라밀다합창단이 합창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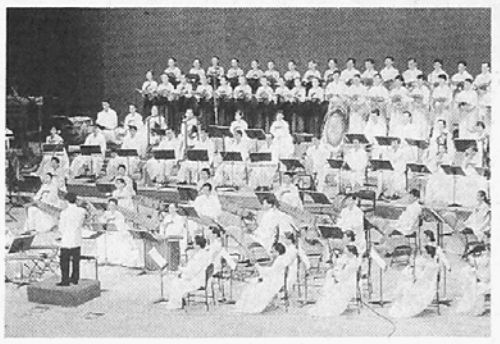
이찬우씨가 이날 발표하는 곡들은 전문성악가를 위한 불교적 서정 가곡들이다.

7월1일 불교음악연구회의 공연에서는 주로 중앙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젊은 작곡가 이진구, 최은숙, 김수미, 현연주씨 등의 신작 불교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진구씨가 '사홍서원'을 피아노 변주곡으로 변형시킨 작품을 내놓으며 '삼귀의'는 김수미씨가 피아노 변주곡과 클라리넷 변주곡으로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다. 또 최은숙씨도 '사홍서원'을 대금변주곡으로 내놓는다.

불교가곡과 찬불가 외에 기존 찬불가의 변주곡을 선보이는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음악연구회는 이날 공연에서 신작 합창곡도 내놓는다. 발표될 합창곡은 정부기교수의 '부처님 오신 날'과 '대각선사 바라보며', 이진구씨의 '산사의 저녁' 등이다. 법인정사, 삼보사등 사찰 합창단이 부르는 이들 합창곡은 피아노 반주외에도 신디사이저를 동원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불교음악연구회는 이 공연에 앞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창작곡을 모집하고 있다. 채택된 곡은 7월1일 공연에서 연주하게 되며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02)682-3674

임연태 기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장면.

'불교음악과 국악의 하모니'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불교음악과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김영동)의 제2백1회 정기 연주회가 지난 19일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관악영산회상'과 '회심곡'등 전통음악과 국악교성곡 '예불'(박범훈 작곡) '보렴, 화초사거리'(김희조 편곡)등이 김희조씨의 지휘로 공연됐으며 중앙불교합창단이 '오늘은 기쁜 날'등 찬불가를 불렀다.

국악과 신입생 연주회

동국대, 지난 17일 원효관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악과 신입생 연주회가 지난 17일 오후5시 교내 원효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신설된 동대 국악과의 신입생들은 이날 연주에서 전원이 영산회상중 '염불도드리와 타령'을 연주했으며 피리산조, 가곡 '편수대엽'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곡을 무대에 올렸다.

불심시심 〈17〉

남길 물건 없다

獨坐深山萬事經 (독좌심산만사경) 홀로앉은 깊은 산 온갖 일 흘가분
掩關經日學無生 (엄관경일학무생) 무생을 배우려 문닫고 세월 보내,
生涯點檢無餘物 (생애점검무여물) 흙어본 평생살이 남길 것 없고
一椀新茶一卷經 (일완신다일권경) 새로운 차 한잔, 한 권의 경전.

이 시는 부휴대사가 그의 스승인 벽암선사와 주고 받은 몇 수 안되는 시 중의 한 수이다. 스승에게 드리는 시이기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단순한 시 같으면서도 여여한 법리의 실상을 담박하게 표현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깊은 산에 홀로 있는 스님, 산 아래의 모든 세속적 일을 여의고 떠나온 곳이다. 시내서는 온갖 일이 가볍다 하였지만 사실은 온갖 일을 잊고 있는 것이다. 어찌 일 뿐이랴 일이 될 수 있는 기미마저도 잊은(忘機) 것이 스님이다. 이런 속에서 문을 닫고 세월을 보낸다. 굳이 닫을 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연을 여읜 스님에게는 열다 닫다 함이 굳이 설정될 수 있는 행위적 개념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경계 설정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말해 보는 문이다. 여기서 무엇을 익히는가. 생이 없음을 익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을 닫는 이유를 알게 한다 태어남이라 할 수 있는 생은 이미 어느 한 사실에 대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 그야말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문을 닫아야만 이 무생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닦는 참선의 생활이다. 이러한 삶에 대하여서야 굳이 다져 보거나 추스려 볼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점검해 본다면 이미 남아있는 물건이 없음이 현실이니 앞으로도 남길 물건 또한 없음이 현실이다. 그래도 생애라는 말의 의미가 암시하듯이 삶의 언저리가 바로 삶의 현실이라 한다면 새로이 끓이는 한 잔의 차와 시선의 거리에 제한을 가하는 한 권의 책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삶의 현실 바로 그 당처이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심사받는 기회·어린이곡도 만들터

인터뷰 첫 발표회 갖는 이찬우씨

32년만에 첫 발표회를 갖는 이찬우씨는 자신의 작품 '청법가'보다 덜 알려진 작곡가다. 부산에서 칩거하며 간간히 작품을 내놓았을뿐 자신의 곡들로 무대를 마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6월3일 발표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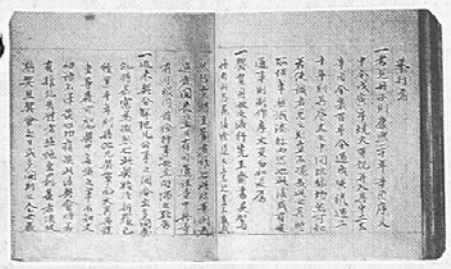
"찬불가의 질적 향상은 작곡가들의 노력에 달린 것입니다. 그간은 전문성악가를 위한 곡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격조높은 찬불가곡 만들기에 제 기량을 총동원했는데 이번 발표회는 불자들에게 심사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처음 갖는 발표회라서 긴장되기도 합니다."

이씨는 1백곡 이상되는 자신의 작품을 아직 한권의 책으로 묶는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이 더 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곡집도 묶어야 겠지만 보다 훌륭한 곡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야죠. 찬불가곡과 어린이찬불가등을 계속 작곡할 계획입니다."

〈태〉





국내 最古 '미타계첩' 햇빛

고미술 수집가 유삼환씨 강릉박물관에 기증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계의 계첩(契帖)이 발견됐다.

고미술수집가 유삼환씨가 강릉 최씨 문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최근에 강릉시립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세상에 공개된 강릉 보현사 〈미타계첩(彌陀契帖)〉은 필사본으로 가로 26.5㎝, 세로 27.2㎝, 모두 60장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는 두꺼운 감청색 저지(楮紙)에 오침선장(五針線裝)으로 꾸며져 있다. 이 계첩은 옛날부터 전해오던 것을 1779년 개장한 것으로서 첫 장에는 강희20년(1681) 신유6월에 쓴 서문이 있다.

미타계는 강릉 지역 보현사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받들던 계 모임으로서, 계헌(契憲)에 따르면 신라때부터 비롯되어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넘게 이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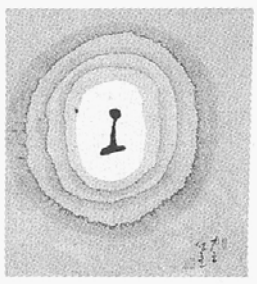
통도사 성보박물관등 문화재사업 173억 투자

경남도는 올해 국비 76억원, 도비 50억원, 시군비 42억원, 자부담 5억원 등 모두 1백73억원을 들여 통도사 성보박물관 건립등 문화재 보수사업 1백17건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1일 도에 따르면 통도사 성보박물관 건립, 옥포대첩지 정비등 59건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1백19억원을 들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륜스님 '그림이야기'

24일부터 인사동 갤러리…30여점 출품



◇성륜스님의 작품 '돌이켜보는 삶'

성륜스님의 '성륜그림이야기'가 오는 24일부터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열린다.

그동안 설치미술과 11번의 전시회를 가진 성륜스님은 '돌이켜 보는 삶'이라는 주제의 이번 개인전에 30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잿빛 승복색깔로 잿빛향기를 그림에 표현했다"는 스님의 작품들은 회색톤으로 일관되게 색감을 살리고 있어 조형감각을 두드러지게 느끼게 한다.

송월(淞月)스님의 7순기념 사군자·선서화 특별전시회가 오는 31일부터 6월6일까지 백상갤러리(720-1708)에서 열린다.

펜으로 그린 그림세계

최홍원씨 펜화전

유화와 함께 펜화를 즐겨 그려 온 최홍원씨가 펜화전시회를 17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관훈미술관 특관에서 갖고 있다.

불교의 세계와 서낭당, 새등을 주제로 한 최씨의 펜화는 섬세함과 형상의 변형을 통한 감동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새시리즈와 인간시리즈 단테의 신곡시리즈 등 작품을 내놓았다.



◇최홍원씨작「금시조」

흥씨는 6·25당시 군복무시절부터 펜화를 시작 '인간' '풍경' '새'등 시리즈물과 5백나한등의 작품 1천5백여점을 그려왔다.

박형덕씨 풍경화전

'영목의 봄'등 작품전시

박형덕씨의 풍경화전이 17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공평아트센타에서 열리고 있다.

불자화가 박형덕씨는 이번 전시에 '영목의 봄'등 풍경화와 인물화등 유화작품을 내놓았다.

불음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문화단신

월정사 '오대법보' 창간

'오대성지이야기'등 수록

월정사 사보 〈오대법보〉가 5월호로 창간됐다. 창간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축사와 방한암 대선사 일대기를 비롯해 오대성지 이야기, 아함의 세계, 월정사 소식 등을 실었다.

발행인 현해스님은 창간사에서 "〈오대법보〉를 통해 한암대종사께서 이루어 놓으신 오대산 가풍을 되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예술경연대회 도선사등 14팀 참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현성)가 주최한 '제8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가 지난 14일 1천3백여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열렸다.

부처님 오신 날 및 청소년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선사, 명성여중고, 자비예술단, 광동중학교, 조계사, 구룡사, 청교련 온양 안산지부, 대구경북지부등 14개팀이 참가, 풍물 화관무 창작민속무용 한국무용 합창 연극 등 다채로운 경연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창작무용을 선보인 자비예술단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문화사진 공모

대한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발행인 혜총)는 제4회 한국전통문화 예술사진전 출품작을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흑백·칼라사진으로 미발표작에 한한다.

(051)867-1515, (02)738-6156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보사부 제조허가 제 502호 제조원 : (주)성한 앤드김
보사부 제조품목허가 제 1호 공급원 : (주)대 진 상 역

막힌 혈을 뚫고 멈춘 피를 돌게하는 무통무혈의 신비의 한방전자침

특수센서가 스스로 "경혈"을 찾아주는 전자동 전자침 (하루 20분 투자로 온몸이 편안해 집니다.)

89년 화타전자침 국내 최초개발
7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95년 "편작전자침"으로 탄생

컴퓨터가 침 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양침술의 기적 "편작전자침"은 침술의 고장 중국을 비롯 미국·영국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가정상비용 전자침입니다.

가정비상용 컴퓨터 전자침
살갗을 뚫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지금!! 바로 주문 하십시요

미국·영국수출

국제 보증서로 1년간 아프터 써비스 보장

보(+), 사(−)스위치 침의 보(+) 사(−) 스위치로서 질환에 따라(+)(−)로 맞추어 사용

감도조절기 편작전자침의 핵심 기능인 침놓는 자리(경혈)를 정확하게 찾아줌

주파수조절기

강도조절기 침의 혼수(1호~7호)

개폐스위치 전원스위치를 ON에 놓으면 탐색등에 불이 켜짐

치료버튼 극초 저주파를 경혈에 주입시키거나 경혈 탐색기능

10단 탐색등(3단적색, 7단청색) 침자리를 접근하면서 청색등이 차례로 들어와 침자리에서 적색등 꺼짐

탐색 및 치료침 살갗을 뚫지 않고 경혈에 특수전류 자극하여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24K순금도금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신비의 단방비법 *

■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비의 침술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침을 놓을 수 있다.
- 침자리(경혈)을 스스로 찾는다 (특수센서)
- 살을 뚫지 않는다.
- 시술시 전혀 아프지 않다.(무통)
- 부작용이 전혀없다(순금도금)
- 안전하다.
-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 (급성질환에 직효)
-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침을 놓을 수 있다.
- AIDS나 간염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

■ 가정상비용 전자동 전자침

- 가정·학교·직장·운동팀·체육관·헬스크럽·테니스·골프장·에어로빅

보너스 1 편작 보감 Ⅰ



-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361혈의 정확한 위치 치료질환이 칼라도해로 쉽게 설명
- 침으로 치료 가능한 모든 질환의 경혈이 색인으로 첨부
- 전문인을 위하여 14경락별 경혈을 세계공통기호로 표시
- 총3500여 질환의 비방 수록

• 칼라 4×6배판 460쪽

보너스 2 편작 보감 Ⅱ



- 전면을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질환별 경혈점 표시

• 칼라 4×6배판 192쪽

■ 비법에 수록된 비방 128가지

두통, 편두통, 조루, 고, 치질압, 위산과다, 안성변비, 동상, 당뇨병, 치통, 감기, 생리통 불순, 냉, 대하, 기미·주근개, 압름주독, 담배끊는 힘, 정력증강, 차골신경통, 임포텐스 설사, 위 십이지장 궤양, 금체, 풍치, 구강악취, 편도선염, 아뇨증, 무릎통증, 관절염, 갑디리의 저림 마비, 각종 염좌, 여드름, 숙취, 테니스 골프·엘보우, 허리통증, 좀도, 습진, 소화불량, 불면증, 콜레스테롤 등

보너스 3 실체 경혈도 3매

-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체계적 경혈 표시 • 4절지 3매

보너스 4 건강생활 대강좌

■건강강좌 유명 강사진 —



홍문화(약학박사)



유태종((식품공학박사)



한국남(의학박사)

1 지궁암·유방암 2 원만한 부부생활
3 술·담배와 건강 4 올바른 식사의 지혜
5 당뇨병, 고혈압 식이요법 6 간장병, 신장병 식이요법
• 카세트테이프 6개, 총12강좌, 자연의학연구회

보너스 5 건강교실(가정건강지침서)

1 당뇨병백과 2 고혈압백과 3 신장병백과
4 간장병백과 5 암백과 6 심장병백과 7 위장병백과
8 호흡기질환 9 관절염 류머티즘 10 자율신경실조증
*편집위원 : 홍문화, 유태종, 김경빈, 원태진(전10권)

보너스 6 이침(耳) 경혈도2매

- 인체의 상응 부위를 그림으로 세밀히 표시
- 이침 혈자리를 정확히 감지

보너스 7 이침(耳) 사용비법 및 비방

- 편작전자침으로 이침 진단법 및 사용법 공개
- 최신 중국 이침 처방공개(금연, 금주, 미용 등)

보너스 8 편작 36 비방

- 임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36가지 병의 비방 공개

* 상품 8가지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

수신자 부담서비스 080-922-7777 이 전화는 받는쪽에서 부담합니다.

특별공급가 ₩158,000원
■분 할 가 ₩ 30,000 × 6회
☎전화 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카드소지자 장기분할 혜택드림

구입처
■서울
●서울 02)712-8711/2
●서울 02)714-9632/3

■경기도
(인천 부천 부평)
●인천 (032)502-5533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원 (0331)42-2908 (안양 의왕 안산)
●수원 (0331)45-2904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성남 (0342)732-1257 (의정부 일산 파주 동두천)
●의정부 (0351)874-3174
■충청도
대전 옥천 금산 영동 충남전역
●대전 (042)581-0151 청주 충주 조치원 공주 충북전역
●청주 (0431)65-8180
■경상도
(부산 김해 양산)
●부산 (051)628-2489 (대구 경산 영천)
●대구 (053)653-0623 (울산 언양 기장)
●울산 (0522)60-7996 (포항 구룡포 연일)
●포항 (0562)81-2976 (경주 안강 감포)
●경주 (0561)749-6586 (상주 영주 단양)
●상주 (0582)34-0630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안동 (0571)52-7706 (구미 왜관 김천 성주)
●구미 (0546)456-4600 (마산 창원 진해 충무)
●마산 (0551)56-7685 (진주 사천 삼천포)
●진주 (0591)746-7551
■강원도
(춘천 가평 화천 양구)
●춘천 (0361)51-0007
(원주 횡성 홍천 제천)
●원주 (0371)46-8260 (강릉 주문진 속초)
●강릉 (0391)42-6830 (동해 삼척 태백)
●동해 (0394)32-5725
■전라도
광주 나주 목포(전남지역)
●광주 (062)524-8110 전주 이리 군산 김제(전북지역)
●전주 (0652)252-8862 (여수 여천 순천 광양)
●여수 (0662)666-2037
■제주도
(제주 서귀포 성산포)
●제주 (064)56-3007



◇ 불교성지로 개발중인 룸비니

네팔 룸비니 성지 조성

박물관·병원등 건립…한국등 10개국 19단체

부처님 나신 곳 네팔 룸비니의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룸비니 개발계획은 모두 7백70여 헥타아르의 땅에 성지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

이 계획에 따르면 개발구역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기 그 특성에 맞게 개발하도록 되어있다.

우선 '신 룸비니 마을'이라 명명된 북부 지역은 병원, 호텔,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게 되며, 156피트의 평화의 탑은 이미 들어선 상태다.

중부지역은 남부지역과 교량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적인 성지가 들어서게 되며 남부지역은 아쇼카 석주와 마야데비 사원 주변을 중심으로 고대 사원의 조형물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설과 급수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번 룸비니 개발계획에는 한국을 비롯 버마 인도 태국 네팔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10개국 19개 불교단체들이 참여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불교적 삶과 죽음' 심층탐구

하와이 大, 6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하와이 대학이 '불교적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하는 하기 프로젝트를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설한다.

포럼및 시연형식으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국의 불교전통을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들과 하와이대 교수 위스컨신대 애톤슨 박사, 라이스대 클레인교수, 경도대 베커 교수와 진월스님이 강연한다.

첫째날인 5월20일에는 생사문제를 다루는 현대 구호봉사자 양성체계와 아시아 문화형태에 대한 개괄적인 토의가 벌어진다. 27일에는 일본의 불교전통이 6월3일에는 베트남 불교전통 10일에는 한국의 불교전통, 17일에는 중국의 불교전통 21일에는 남방불교전통 22일에는 티벳불교전통, 23일에는 일본인의 삶과 죽음이 각각 강연된다.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아시아 불교문화 속의 삶과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갖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담은 예술, 의식, 신앙, 관습, 가치관, 철학 등을 아시아문화를 통해 음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지역 교수불자협 태동

加 선련사서 7월4일 창립법회

'북미교수불자협의회(FAB)'는 오는 7월4일 캐나다 토론토 선련사(회주 삼우스님)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선련사 회주 삼우스님의 각고의 원력끝에 결실을 맺게 된 북미교수불자협의회는 서양불교 정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그 정착과정의 시점에서 불자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초대 의장에는 스티븐 레이록교수(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 대학 철학과)와 피터 팀만교수(토론토대학 환경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초파일 '출발…' 자제공덕회 묘희스님 출연후

무의탁 노인돕기 "너도 나도 관심"

김종찬·구지윤씨 등 불자들 위문·가입뜻 밝혀



◇ 묘희스님



◇ 김종찬씨



◇ 구지윤씨

지난 7일 부처님 오신 날 오후 6시부터 두시간동안 방송된 교통방송의 '출발 서울대행진'이 무의탁 할머니돕기의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고있다. 이날 교통방송은 사찰주변의 교통을 안내하며 자제공덕회 묘희스님을 초청했었다.

진행을 맡고있는 김종찬씨와 게스트로 출연했던 구지윤씨는 스님의 자비행에 감동돼 방송중에 즉석에서 후원회원에 가입했고 방송프로관계자들도 모두 가입을 신청한 것.

담당PD 김부영씨는"현재까지도 하루에 2~3통씩 전화가 오고 있다"며 "이렇게 호응이 클 줄 몰랐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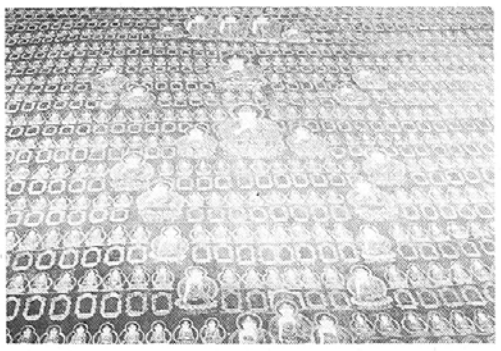
모사찰의 거사림회를 창립시켰을 만큼 불교신행을 적극적으로 해온 김종찬씨는 "훌륭한 스님을 보니 존경스러웠다"며 묘희스님의 자제공덕회에 평생회원이 됐다고.

또 불교방송 '여성시대' 진행을 맡았었던 구지윤씨는 "세수 60인 스님의 활발한 활동과 음성이 맑아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문화교실 회원들과 함께 자제정사를 방문하여 음성공양을 펼칠 계획을 잡고 있다.

독실한 불자들이 대부분인 '구지윤 문화교실' 회장 이옥자 보살도 회원들과 함께 위문및 가입의 뜻을 모으고 있다.

'남을 돕는 일이 떠들썩하면 본뜻이 흐려진다'며 소리소문 없이 자비보살행을 실천해온 묘희스님은 경기도 화성군에 자제정사(☎(0339)57-5788)를 세워 38명의 무의탁할머니를 봉양하고 있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에 맺어진 교통방송과의 인연에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용주사 천불탱화 지난 14일 용주사가 공개한 천불탱화. 걸은 바탕에 금빛으로 그려진 천불의 각각 아래에는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려져 있다. 가로 3.7m 세로 6.8m 의 이 탱화는 72년에 용주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일제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탱화는 25일 오후2시 수원실내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되는 화산효행교육원 건립축하공연에서 다시 공개된다.

영산대재 시현

태고종 지난19일 봉원사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김혜경스님)는 지난 19일 제7회 영산재시현법회를 봉원사에서 봉행했다.

국가무형문화재지정 8주년 기념행사로 실시되는 이번 영산재는 인간문화재 50호 박송암 장벽응 이일응 전지광스님외 30여명이 참여, 천수바라 나비춤 법고등을 비롯 영산재 전과정을 전통의식에 따라 시현했다.

종조탄신 봉축법회

진각종 10일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최지광)은 지난 10일 제94회 종조탄신절을 맞아 각해 총인을 비롯 5백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인원 중조전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조탄신 봉축법회에서 지광통리원장은 봉축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화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기구를 마련, 종단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채스승교육 실시

불교총지종 5명 양성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신채스승교육을 통리원에서 실시했다.

종단의 스승과 종무원 양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조영자 정각사를 비롯 총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스승교육내용으로는 불교·밀교의 기초, 불공과 교화, 실무종합등 다양하게 실시됐다.

교육을 마친 5명은 49일 불공, 7개월동안의 시무생활을 걸쳐 본격적인 포교 수행활동을 하게 된다.

박선자·최낙복 교수

삼광학술상 수상

천태종 삼광사(주지 변춘광)는 지난 16일 오후6시 삼광사내 불교회관에서 제8회 삼광 한글학술상 및 제2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시상식을 거행했다. 수상자는 박선자교수(부산대) 최낙복교수(동아대)의 최동진(부산대 학생)등 우수상 3명과 장려상 4명.

구독신청 : 737-8881

"언론 독립성 지킬터"

강한필職代 간담회서



◇ 강한필 직대

김태호사장의 사퇴와 관련 사장직무대행을 맡은 강한필전무는 지난 17일 교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교방송 사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한필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前 김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더이상의 직원 징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한필 직무대리는 "불교방송과 종단과의 관계개선과 직원화합에 최선을 다하며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원징계 등 논의

조계종 불방 대책특위

조계종 불교방송 대책위는 지난 16일 총무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가불자사장선출' '직원징계'를 골자로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장 선출과 관련 진흥원 추천조항을 없애고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이사의 임기조항을 명시하는 정관개정과 재가불자 전문경영인으로의 사장 선출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징계부분(이태호 김재진 국장, 이정부장 해임)은 끝까지 관철키로 했으며 방송제작 협조 협찬 출연금지는 차기 사장 선임시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히고 직원징계와 차기사장 임명완료까지를 방송국 정상화 시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불교 이름빌린 상업소설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2부 기자〉

불교인이라면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접하고는 언설로 표현못할 감동을 간직하게 된다.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환희로운 자태를 드러내듯 번뇌와 열반을 넘나드는 세계에 환하게 눈을 열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종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 불미스런 여자관계 등의 얘기를 떠도는 소문으로 전해들으며 붓다의 가르침에서 받았던 환희심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다.

이청씨의 소설〈사리〉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10·27 법난까지의 시간적 공간을 배경으로 오직 종권쟁취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승들의 불교적 행태, 여자의 늪에 탐닉하는 모습 등 불교계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반대편에 수행정진에만 전념하는 구도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았다.

이청씨는 이 소설에서 수행자의 고준한 정신적 유산이 바로 '사리'임을 강조하는 한편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권승들의 쓸쓸한 말로를 설정해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려 애썼다. 아울러 종권다툼을 원격조종하는 '안가의 부장'을 등장시켜 읽는 재미를 돋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의도하는 불교의 나아갈 방향은 지향점을 잃고 있다. 그것은 종교 소설이 갖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들춰내기식의 스토리 전개에 더 몰입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다. 결론적으로 〈사리〉는 상업성이 뼈대이고 근육이며 살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불교문학이 아쉬운 현실에서, 또 진정한 구도자와 불교사랑의 표상을 만나고 싶은 불자들에게 이 소설이 더욱 깊은 낭패감을 남겨줄까 염려된다. 쓰디쓴 뒷맛을 즐기는 독자만이 반길 작품이다.

정공법으로 불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질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정공법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애정결핍과 포용력의 부족을 극복하지 못했음이 이 소설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 소설은 또 작가적 상상력과 숭고한 종교적 가치와의 혼돈을 던져 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선종 한국·일본에 끼친 영향

불교 2600년 (24일 12:30~13:20) 당나라 때까지 성행했던 불교의 흥망성쇠, 선종의 전파가 한국과 일본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중국의 현증사, 한국의 동학사, 일본의 향원사가 소개된다.

권익현 의원의 신행생활

나의 삶 나의 불교 (27일 11:10~12:00) 국회정각회장으로 의원 뺏지보다 포교사 자격증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권익현 의원의 신행생활과 인생역정을 들어본다.

왕의 부탁 거절하고 천축행

삼장법사 현장 (27일 12:30~13:20) 현장스님은 6일동안 목숨을 건 사투끝에 새조차 날지 못한다는 죽음의 고비사막을 건너서 천축에서 가까운 소창성에 도착하고 고창왕의 환대를 받는데….

강원도 양양 낙산사 찾아

한국의 명찰 (29일 11:10~12:00)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는 해변에 위치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3대관음도량중 하나이다. 낙산사 관음상에는 이광수의 소설〈꿈〉의 근원인 조신의 설화가 전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구도자로서의 김시습 조명

바로보는 불교역사 (22일 14:10~15:00) 김시습(설정스님)이 방랑자로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구도자였던 진실을 조명해 보는 시간이다.

주말농장·전원주택 안내

생방송! 천수천안 (22일 16:10~16:40) 박혜정리포터가 출연하여 주말농장, 전원주택 분양의 문제점에 관해 알아본다.

뉴미디어에 관한 정보

생방송! BBS 정보시대 (24일 18:00~18:45) 조선일보 뉴미디어 이진광 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뉴미디어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충남대 이평래교수의 강의

교리강좌 (26일 06:40~07:00) 부처님의 구도역정에 관해 충남대 철학과 이평래교수가 강의한다.

불교성지 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출발 : 6월 25일
·동참금 : 100만원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발 : 6월 20일
·동참금 : 118만원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 : 6월 20일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출발 : 6월 20일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 : 6월 20일
·동참금 : 195만원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발 : 6월 3일
·동참금 : 188만원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출발 : 5월 27일
·동참금 : 230만원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쟝쩨－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아빠는 가족불심 선봉장"

진관사·은석국교 '불자아버지회' 결성…'새신행' 확산

신행활동에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적극지원 배려하는 불자아버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은석국민학교 연화어머니회를 모태로 출발한 연화아버지 모임(가칭). 어머니회의 활동을 도와 동참해온 아버지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화어린이 사찰순례법회의 일일 지도교사로 참가하는 등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자원봉사 모임인 수원연화회의 거사회도 어머니들의 모임에 자극받아 결성된 불자아버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용주사 가족수련회를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한마음 불자가정을 이뤘다.

자녀들의 불교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진관사 아버지법회가 얼마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삼천사는 부부가족법회의 회원들이 주최가 되어 청소년불교교실을 오는 7월경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반야정사 등 사찰의 거사회들도 어린이·학생법회에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불자아버지들의 학생법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인 남교희씨(아트라인 대표)도 불자아버지의 한사람. 두 딸의 아버지인 남씨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좋은 아버지 모임을 통해 올바른 아버지 역할을 위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아동문학회의 경우도 회원의 70%가 불자아버지회원이다. 불교아동문학회 곽영석간사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읽을 도서를 심의하고 찬불가 가사를 짓고 함께 법회도 참석하는 등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범불교적으로 아버지들의 동참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자아버지들의 활동이 불자가정의 새로운 신행풍토를 조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조계사는 정화회관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2층 지상2층 목조3층의 만불보전을 건립한다.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

조계사, 연건평 8백20여평…31일 기원법회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통일기원 만불보전'이 건립된다.

일제의 압박속에서 해방을 맞은지 50년인 올해 건립되는 만불보전은 통일을 향한 지극한 염원을 담아 연건평 8백20여평으로 지하2층 지상2층 목조3층의 전통양식으로 지어진다.

만불보전 지상 1층은 종무소 및 불교용품 전시실이 들어서고 2층은 조계사를 찾는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마음껏 개방된다. 세미나 및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소강당과 비디오등 최신 영상기기가 들어서며 전통차를 즐기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다원도 들어설 계획. 지상 3~5층은 통일을 기원하는 만분의 부처님이 봉안되는데 전통양식의 목조건물이 될 것이다.

또한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쓰여져 조계사를 몸살나게 하던 주차난이 해결 조계사가 교구본사로서의 제 면모를 되찾게 될 예정이다.

총공사비 약 1백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만불보전은 오는 97년 봄 완공 예정이다.

조계사는 통일기원만불보전 건립추진위원회(고문 서석재 총무처장관)를 구성하고 오는 31일 수요일 오후 6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생명을 푸르게' 청정국토 가꾸기

내달 3·4일 20여 불교단체 어린이 환경연극등 펼쳐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를 주제로 한 청정국토 한마당이 6월 3,4일 이틀동안 조계사와 인근 수송공원에서 개최된다.

청정국토 한마당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행사일정과 내용을 확정했다.

제5회 환경주간을 맞아 석왕사와 불교환경교육원등 20여 불교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법회 △어린이 환경연극 △백일장 그림그리기 △풍물공연 △불자환경 만민공동회 △정태춘 김광석 초청공연 △물물교환장터 등이 펼쳐진다.

정부 판문점행사 불허

8·15 법회 무산될듯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 판문점 행사 및 전국규모 옥외행사를 불허키로 결정,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 남북합동법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조계종 총무원과 평불협은 23일 북경 예비 실무회담을 통해 조불련측에 현상황을 이해시키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상호 순수한 종교행사로 남북한 불교계가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는 '남북합동 조국통일기원법회'를 개최키로 수정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18 추모법회 봉행

광주사암연, 항쟁 15주년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스님)는 지난 18일 낮 12시 도청앞 광장에서 '5·18영령 추모법회와 천도재'를 봉행했다.

5·18 민중항쟁 15주년을 맞이해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 이날 법회는 지선스님의 '5·18 정신계승과 기소촉구'연설에 이어 천도재 등이 거행됐다.

한·중·일 불교우호회의

22·23일 북경서 개최

한국 중국 일본 불교도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가 5월 22, 23일 양일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단장으로 각 종단 대표자 스님들이 참여, 22일 개최와 기조연설 23일 기념법회와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갖는다.

〈차주상보〉

'복지한마당' 6월 9일 열어

조계종, 불교사회시설 단체장 모임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설립 기념법회 및 불교복지인 초청 '불교복지 한마당'을 오는 6월 9일 개최한다.

불교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체계화 정립을 위한 시도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민간기관으로서의 불교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열고 21세기 불교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교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의 연대모임도 함께 열어 사회복지사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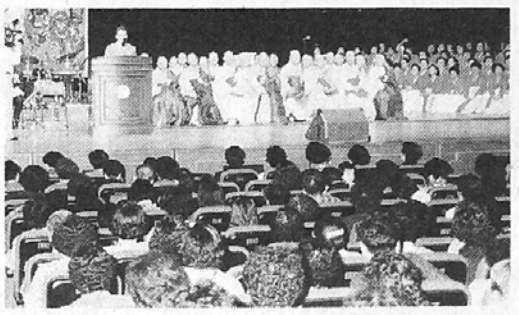
양천체육센터 개관

내달 1일…관장에 상륜스님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이 서울 양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된 양천구민체육센타(양천구 신정동 322-10)가 오는 6월1일 개관식을 갖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운영을 맡아 초대관장에 성상륜스님(승가사 주지)이 취임,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대구지사 053)426-2779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안양불교사암연은 시민을 위한 대법회를 갖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52세대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소년소녀가장등에 성금 전달

안양사암연 대법회 개최…2천불자 동참

안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덕)는 지난달 28일 안양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안양시민을 위한 대법회를 개최, 소년소녀가장 52세대에 5백2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법회는 스님, 신도를 비롯 관내 기관장등 2천여명이 동참, 안양시민 및 불자들의 신앙심을 앙양하는 포교의 장이 됐다.

이에앞서 안양사암연은 수도군단 충의사와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를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을해년 하안거 결제

지난 14일 일제 봉행

을해년 하안거 결제가 지난 14일(음력 4월 15일)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해인 조계 영축 덕숭총림등 조계종 4대 총림을 비롯 전국의 각 선원과 사찰에서는 입제식을 갖고 방장 및 조실스님의 결제법문을 들은 후 3개월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조계종정 월하스님은 결제법어에서 "못에 맑은 물이 있으면 달그림자는 저절로 떠오른다"며 장사스님의 계송을 예로 들며 끊임없는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성보문화재 종단차원 실사

이달말 예산·전문인력등 구체계획 세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종단차원의 실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시현스님)는 각 교구 본말사에 산재해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해 각 사찰의 협조를 얻어 정밀한 실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말쯤 예산 및 전문인력, 일정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문화국장 덕신스님은 "현재 문사부에 비치돼 있는 각 교구 본말사 성보대장에는 빠진 문화재가 많을뿐더러 사진이나 기록미비등 허술하기 짝이 없어 성보관리 및 보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실사를 통해 정밀한 성보대장을 다시 만들어 주지 교체시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 발족

태고사상 기리기등 각종 문화사업 전개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이 창립됐다.

지난 3월22일자로 문체부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은 대륜불교문화원은 종단을 초월해 승가와 포교사, 사회유력인사등으로 구성된 순수 학문과 포교사업 단체다. 연구원은 올해 출범을 기념해 태고 보우스님과 태고종의 개조(開祖) 대륜(大輪)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연구활동과 문집편찬 작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세계불교문화연구, 불교정신문화강좌 및 포교사업, 불교지도자 육성 및 연수사업, 국제간 불교문화 교류사업등을 펼칠 계획이다.

'핵과 한국안보' 강연

평불협, 봉축특별 토론회도

평불협(회장 월주스님)은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종단협 강당에서 '봉축 특별초청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불협은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종단협 강당에서 마치에피츠박사(폴란드 역사학자·학술원 회원)를 초청해 두번째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표선우 역할분담 체제

선우도량(상임대표 도법스님)은 지난 10일 남원 실상사에서 '제2기 1차 실행선우 모임'을 열고 화엄학림 개원 및 운영 등 올해 중점사업을 구체화했다.

선우도량은 7인의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15일 문을 연 화엄학림(운영위원장 운산스님·실상사 주지)에 교수로 영관스님, 법성스님, 현응스님 등을 선임하는 한편 교과목은 화엄현담, 화엄경, 화엄경소, 화엄학개론 등 7개 과목을 확정했다.

능인선원 최우수상 수여

불기 2539년 봉축위원회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봉축행사 관련 시상식을 갖고 능인선원에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금년 봉축행사결산과 함께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천태종 한마음선원 선학원 총지종 국립산업대학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태고종과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가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봉축행사에 공이 많은 금융단 청교연 건영 수국사합창단등이 모범상 장려상 감사패 표창패등을 받았다.

조계종 신도등록지침서 발간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실무기획단은 지난 16일 신도등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안내책자 '신도등록지침서'를 발간, 홍보에 들어갔다.

실무기획단은 지침서를 통해 "신도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신도는 신행의 근본도량으로 본말사 및 포교당을 제적사찰로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도 교무급으로 년 1만원(18세 이하는 5천원)을 납부해야 신도등록이 된다"고 밝혔다.

불청실 27일 특별강연회

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회장 이호식)는 오는 27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는 이항녕 박사(YMBA 회장)가 '남북통일과 불교인의 역사적 사명', 태응스님(btn 사장)이 '불국토를 건설하자', 박광서교수(서강대 물리학과)가 '21세기 불교인의 역할'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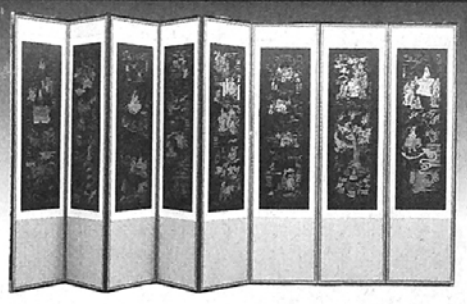
선운사 운성강백 다비봉행

지난 6일 세수 85세를 일기로 열반에 든 운성스님의 다비식이 지난 10일 전북고창 선운사 다비장에서 조계총림 방장 승찬스님을 비롯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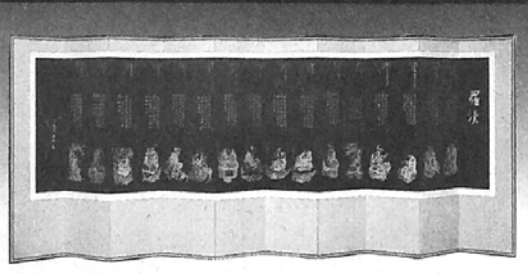
1924년 박한영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운성스님은 한영 대강백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은 후 50여년 동안 제방 강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획 불자보시품 대할인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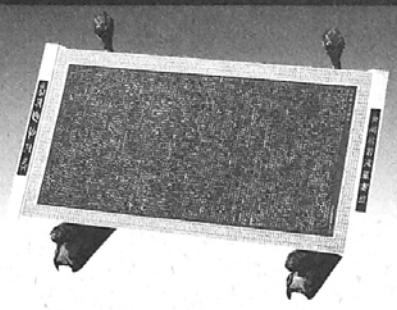
■구입 문의 三田佛事 (02)732-6095 732-6096
•글로버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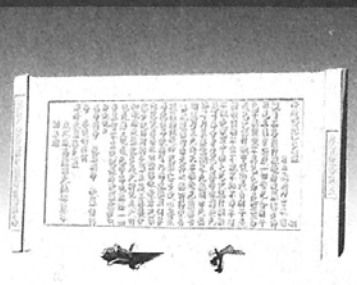
선착순 20점
• 석가세존부처님일대기병풍
장엄하신 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살아있는 병풍입니다.
■ 8폭 높이 : 5자5치(167㎝) 폭 : 12자(364㎝)
• 증 전 가 : ~~298,000~~
• 행사보급가 : 298,000



선착순 38점
• 16나한 수행상 탱화병풍
중국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원작을 공단에 금화로 조성한 영험높은 병풍
■ 10폭 높이 : 5자6치(169.7㎝) 폭 : 15자(약 454,500㎝)
• 증 전 가 : ~~340,000~~
• 행사특가 : 300,000



선착순 48점
• 비경 천불금강경 경판
부처님 천분을 양각하여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한 비경
■ 재질 주석 99%(순금개금) ■ 규격 505×255×8(㎜)
• 증 전 가 : ~~408,000~~
• 행사특가 : 340,000



선착순 108점
• 국보제32호(고려팔만대장경 정밀축소)
금동반야심경
■ 재질 : 순동 24K개금
재질 : 가로260×세로99(㎜)
• 증 전 가 : ~~120,000~~
• 행사특가 : 68,000



■ 만다라호신 벽시계
불법의 원력을 바로 느끼게 하는 신비의 영성세계 - 만다라
• 완전입체만다라 • 규격 41(㎜)
선착순 7점
• 증 전 가 : ~~100,000~~
• 행사특가 : 90,000



■ 염주메달
영롱한진주로 빚어진 부처님상 18K(9.375g 천연루비 22개
• 증 전 가 : ~~320,000~~
• 행사특가 : 288,000



■ 팔 정 도
(앞)관세음보살상(뒤)반야심경 순은 99.9% 18.75g(체인포함)
• 증 전 가 : ~~120,000~~
• 행사특가 : 32,000



선착순 108점
■ 24K 순금
황금반야심경백자
• 경봉대선사 친필
• 크기 : 30×104㎝
• 증 전 가 : ~~120,000~~
• 행사특가 : 98,000



선착순 118점
■ 국보 제29호
황금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
• 재질 : 순청동·순금개금
• 크기 : 235×185×270(㎜)
• 증 전 가 : ~~100,000~~
• 행사특가 : 85,000

거리마다 구호 "우리식 대로 산다"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손님으로 찾아간 평양 〈1〉

북한불교 방문기의 필자 지현정사(본명 장용철, 진각종 LA포교원장: 시인)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정산스님(LA수도사주지)과 함께 8박9일간 북한을 방문, 평양 축전을 참관하고 박태호 조선 불교도연맹위원장 등 북한불교대표들과 만났다. 남북해외불교지도자법회, 8·15판문점공동법회 등을 논의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돌아온 지현정사는 북한 불교계의 모습과 그 소감을 5회에 걸쳐 본지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광불협 미주본부 대표로 방북한 정산스님(오른쪽 세번째)과 필자 장지현정사(오른쪽 첫번째)가 북한 중앙TV 기자들을 조선영화 촬영소 가는 길에 만났다. 오른쪽 두번째는 89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여성대회에 대변인으로 참석했던 정명순 논평원. 왼쪽 첫번째는 사진기자다.

1995년, 평양의 4월은 맑았다.

거리는 개나리 진달래 꽃이 만발하였으며 산들바람을 헤치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다. 간판보다 구호가 많은 도시, 구호보다 개나리꽃이 더 많은 도시 평양이었다.

우리가(재미교포 '전금' 참관단) 평양에 도착한 것은 4월23일 오후2시, 북경을 출발한 전세 여객기가 꿈의 압록강을 건너 1시간20분 가량 비행한 이후이다.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우리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순안비행장은 마중나온 안내원들과 정복차림의 군인, 그리고 세관원들로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항내리자 긴장감이

준비해간 선물이 많아 누구보다 까다로운 검색을 마친 정산스님(광불협 미주본부 상임고문, 이번 나와 함께 방북 실무대표였음)과 나는 일행의 눈총을 받으며 제일 늦게 버스에 올라 평양 시내로 향했다. 또 다른 내 조국의 반쪽 수도인 평양은 이렇게 8박9일 동안 50년 세월을 돌아온, 그래서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된 낯선 동포들을 맞아들였다.

이번 방북 기간에 금강산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평양 시내에서 보냈다. 우리의 숙소는 대동강과 보통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그래서 량강호텔이라 이름 붙여진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시간이 허락할때 호텔 13층에 있는 회전식당에 들렀는데 멀리 두류섬과 쑥섬이 봄 아지랑이 속으로 아름답게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평양 시내에는 고려, 량강, 서산등 몇개의 대형 호텔이 있다. 우리가 묵은 량강호텔 역시 외국인들을 접대하는 고급호텔이었는데 건물에 비해 그 시설은 여러가지 이려운 경제사정을 말해주는듯 했다. 간식쟁반을 덮은 보자기나 수건에는 유년시절 어머니들이 곱게 놓던 그 자수가 그대로 새겨져 있어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화장지나 세면도구는 정결하기는 했으나 자립 통제경제속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평양 시내뿐 아니라 북한땅 어디를 가던지 '우리는 우리식 대로 산다'는 오기로 똘똘 뭉친 구호가 눈에 띄인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 혹시나해서 사는 형편을 물으면 "자급자족으로 이만큼 살면 됐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냐"고 오히려 되묻곤 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에 내성이 된 사람들, 그러나 자존심 하나만은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인상을 주는 그들이었다.

북미 장거리전화 통화

나는 호텔에 있는 동안 미국에 두번 직통전화를 했다. 전화 요금은 한통화에 15원(한화 약6천원)정도였는데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지불할 수도 있었다. 얼마전 새로 개통된 북미간의 장거리 전화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는 판매원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교포들의 자친 질문이나 농담도 받아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모어라는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가 '입말'이라 했고, 한글을 '조선 글'이라고 했다. 개성 관문점 방문시에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텔레비젼에서 방영됐다는 말을 '봤다'라는 표현으로 했다. 실로 반세기의 세월을 등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국토분만 아니라 말까지도 갈라놓는 서글픈 꿈을 파놓은 것 같았다.

첫날 우리는 만경대 고향집을 들렀는데 이 코스는 방북하는 모든 손님들이 거쳐가는 첫 코스이다. 만경대 김일성 주석의 생가를 보고 느낀 것은 왜 봄과 가을에 방문객이 많은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아닌 절기가 한층 이곳의 인상을 좋게하는 시기이기 때문인것 같았다.

휴지통 필요없는 도시

인구 천만의 세계적 도시인 서울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인구 250만의 도시 평양에도 사람들은 있을 만큼 있었고 오갈만큼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은 그리 많지 않아서 신호등이 많지 않았고 대신 수신호 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방도시들은 아예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었는데 어디를 가도 도시는 휴지통이 필요없을 만큼 깨끗하게 보였다.

평양은 전쟁후 모든 도시 계획이 짜여진 도시라 비교적 짜임새가 있었다. 크고 낮은 건물의 조화, 도로사정, 아파트 군락이 제대로된 기획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건물마다 간판이 없고 아파트의 동수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답답한 느낌을 주었고, 공공 건물의 내부는 물론 곳곳에 세워진 김주석의 동상과 사진, 그리고 그를 기리는 구호가 유일한 장식인 것을 보면 아무리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도 사회주의의 실상이 이질감을 주기도 했다.

고급호텔 시설빈약 어려운 경제사정 대변

"반세기 등지고 살면서 말까지 달라 서글퍼"



◇ 북한이 세계관광기구 창립20돌을 기념하여 만든 금강산 묘길상 우표.



주부신행담

세상의 손발 되어 ③

재수해서도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부모를 속이고 배신한 결과였다. 처음에는 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했고 지원하려 했었다. 그런데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이다.

낮추고 또 낮추어 제발 어디든 들어만 가지고 소원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의욕을 잃어가고 아들하나 사람 만들지 못한 자책으로 스스로 괴로워 했다.

자식농사 실패하고 살면 무엇하느냐고도 했다. 이때의 심정으로는 낙방이 인생의 실패로 느껴졌다. 상심한 아들과 남편의 마음을 달래고 안정시켜야 했기에 나는 이중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집을 떠나 바람을 쏘이면 나아질까해서 목적도 계획도 없이 여행을 떠났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정처없이 길을 걷던 나의 발길이 머문곳은 수덕사가 있는 곳이었다.

수덕사에서 며칠있다 돌아온 나는 부처님 가르침따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발심 정진을 하게 되었고 나와 같은 길을 걸으며 고통스러워 할 어머니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무엇으로 전법하고 한사람이라도 정법으로 인도할 수있을까.

스스로의 닦음과 정진이 먼저 해야 할 일인것 같아 나는 용맹정진으로 마음과 몸을 부처님 법 앞에 의지하였다.

대참회의 백일기도를 거듭하면서 혼자만 초발심의 기쁨을 누려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는 먼저 남편에게 전법하고 법회에 함께 나갈 것을 권유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법가정 이루기를 서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법회에 함께 나가면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의 생활에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인생을 세상사 일어나는 일에만 전부를 걸고 살았던 나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슬픔은 단순히 남편을 빼앗긴 질투나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동안 나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는 나의 희생과 봉사가 남편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편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그 동안 나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는 나의 희생과 봉사가 남편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편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면 내게 더 큰 공부와 소득을 가져오는 걸 알았다 사바세계는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므로 이웃과 함께 한다는 각오가 필요했다**

나는 불교에 귀의하여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자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생각과 뜻과 길이 같아진 우리 부부는 화평한 불법가정을 이루었다. 남편은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조언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다.

결혼 상담실이 자리가 잡혀갈 즈음 또하나의 상담실을 만들어 문을 열게 되었다.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주는 인생상담실 '진리의 전화'가 출범했다. 나는 초대 장직을 맡아서 미비한 시설을 갖추고 상담원을 확보하기 위해 1회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92년 봄에 개원법회를 알차고 성대히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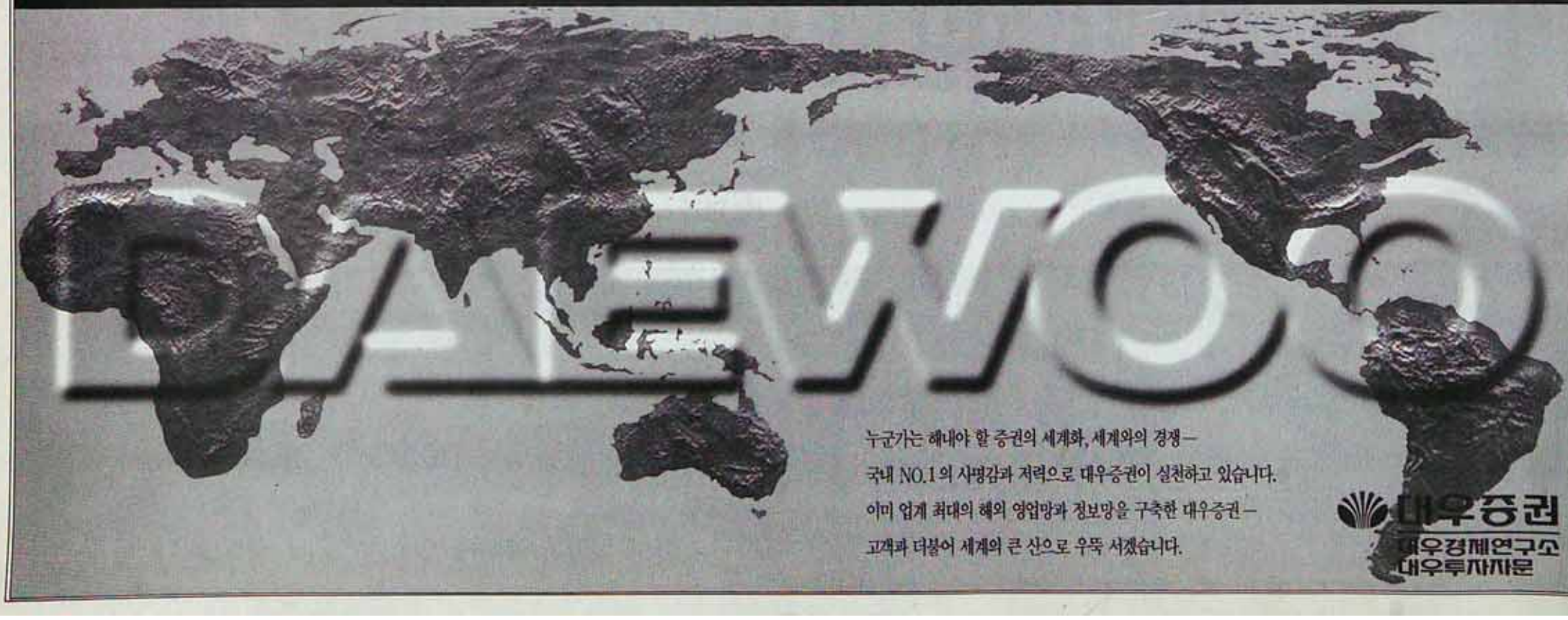
이렇게 인생상담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상담원들이 정신적 피로와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 주면서 내게는 더 큰 공부와 소득을 가져왔다. 사바세계는 고통을 참고 견뎌나가야 하는 세상이므로 이웃과 함께 한다는 각오가 필요했다.

상담해 오는 경우도 가지가지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와줄 수 없느냐는 것부터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상담, 고부간 갈등과 자식의 탈선 내지는 공부가 모자라서 애타는 어머니, 가족간의 종교적 갈등, 세상 법규에 어두워 당하는 고통, 젊은 나이로 군법당 세우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군인들, 아프고 외로워도 찾아와보는 사람 없다며 하소연 하는 사람, 불교와 미신을 구분못하여 당하는 불이익, 심각한 청소년 탈선문제 등 이루 셀 수 없는 사례로 상담해온다.

그들 이야기에 귀를 귀울이고 친절히 상담해주고 나면 보람도 있지만 가끔 마음이 답답해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동 여래성(구룡사 진리의 전화 회장)

세계와의 승부-1위 회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할 증권의 세계화, 세계와의 경쟁-
국내 NO.1의 사명감과 저력으로 대우증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대의 해외 영업망과 정보망을 구축한 대우증권-
고객과 더불어 세계의 큰 산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